

적어도 언론 자유에 있어서는 ‘이만하면’이란 중간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들에게는 언론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둘 중의 하나가 있을 뿐 ‘이만하면 언론 자유가 있다고’ 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자신이 시인도 문학자도 아니라는 말밖에는 아니 된다.

- 김수영

< 투덜리즘 >

투덜리즘은 편집진이 말하고픈 대로 말하는 코너입니다. 투덜리즘은 오승희의 습관이자 본질이죠. “우리 모두 투덜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두 발에는 신고 걸어갈 신발을 신자.”



말 좀 하고 삼시다!

학교 급식이 이상해, 겨울에 치마 교복은 너무 추워, 내 머리에 함부로 손대지 마, 일제고사 거부하고 함께 모여 봐요, ‘경제’가 이상해, 과자가 너무 비싸, 교육감 선거 우리도 하고 싶어, 군대는 꼭 있어야 할까.

많은 말들이 떠다닙니다. 누가 어떤 순간에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은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온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유언비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들이 어디쯤에서 멈춰줘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만 우선은, 우리 말 좀 하고 삼시다. 진작부터 말을 멈춰야 한다고 명령하려드는 표지판들 천지입니다. 청소년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사회입니다. 어른들이, 학교가, 정부가 막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 스스로가 입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지금의 침묵이 미래의 금이 되리라 주문을 겁니다. 그러나 미래라는 시간의 존재 가능성 자체에 관한 문제는 미뤄두더라도, 미래에도 말 한마디 하기 쉽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경제 위기에 관해 인터넷에 몇 마디 올린 네티즌의 신원은 무려 청와대와 정부에 의해 ‘대강’ 파악되고,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하하라고 외치는 무리에는 형사의 시선이 따릅니다. 방송사들조차도 ‘낙하산’에 신음합니다.

승희는 청소년들에게 지금 당장 무언가 말을 하라고 다그치지 않으려 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 청소년이 고립될 수 있고, 언어적·신체적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현실 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희는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털어놓은 얘기들을 다른 이들도 접할 수 있게 하여 지금과는 다른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고자 합니다.

김수영 시인의 말처럼 언론의 자유에 ‘이만하면’이 없는 것은, 승희 같은 ‘언론인’들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언론 자유. 말하고 투덜거릴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나 인격 존중을 위해 말할 자유에 불가피한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좀만 말했다 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방방대는 놔둘투성이에, 온갖 악법들에, 언론의 자유도 움츠러들고 위축되는 세상입니다. 소박한 음모론을 제기하자면, 이건 우리들이 말하는 법을 까먹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희는 열심히 언론자유를 외치고 투덜리즘을 실천하며 ‘말하는 법’을 까먹지 않으려 합니다.

“커져버린 스토리”는 뭐 대략 ‘커버스토리’입니다. 글 하나로 끝내고 싶었는데 할 말이 많아 커져버려서 여러 개의 기획고찰이 되어버린, 뭐 그런 거죠. 몇 안 되는 편집진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2와 4분의 3년, 그리고 언론 자유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 창간호부터 읽어온 열혈독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혹시 그런 이가 있다면, 창간호 1면에 실렸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억하실지 또 모르겠다. 그 칼럼은, 청소년 언론자유와 실상을 알리고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글이었다. 그 칼럼에서 다뤄진 사례는 아무리 봐도 그저 썩은 미소가 지어질 뿐일 정도로 어이없는 사례였고, 그 당시의 언론자유라는 것도 딱 그 수준으로 어이없었다. 그로부터 2년 하고도 4분의 3년, 다시 화두는 언론자유다.

왜 다시 언론자유인가?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열렬히 사모하고 있다. 얼굴 볼 기회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얼굴을 볼 때마다 행복하다. 야자에 시달리고 피로에 찌든 얼굴로, 부모님의 잔소리를 뒤로 하며, 책가방을 대충 집어던지고, ‘그분’

의 미니홈피에 들어간다. 사진첩에 있는 ‘그분’의 사진, 당신에겐 바탕화면이요, 휴대폰 배경화면감이다. 사진첩에 있는 ‘난 ~~한 사람이 좋더라’하는 식의 스크랩을 읽을 때면, 흡사 그 대상이 당신이 된 것처럼 기쁘다.

소심한 당신, 드디어 큰맘 먹고 당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한다. 3박4일을 고민한다. 어떤 말을 할까, 그 말을 어떻게 써야할까, 또 어떤 편지지에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써야 좋을까, 선물을 같이 줄까 말까, 준다면 뭘 줄까, 어떻게 전해줄까... 당신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마침내 편지를 완성하고 ‘그분’에게 전해준다. 초조한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리는 당신. 그러나 답장은 없다. 좀 더 기다려본다. 역시나 답장이 없다. 아, 바쁜가 보구나. 그런데 별로 바쁜 것 같지도 않다.

필자가 느끼는 기분이 대충 요런 수준이다. 언론자유와 실상을 이야기하고,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웬지 무시당한 느낌이다. 2년 하고도 4분의 3년 전

에 비해, 청소년의 언론자유는 -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해 ‘표현의 자유’는 -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5월에 있었던 ‘등교거부 시위’ 문자는 공권력이 ‘괴담’으로 낙인찍고서 주동자 색출에 나서기도 했다. 시위에 참가하려던 학생이 수업 중에 경찰에게 불려가기도 했다. 톱스타의 자살 사건이 생기자, 정부와 여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빛의 속도로 고인의 이름을 딴 인터넷 장악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아, 그런데 정보통신망법과 실명제법 등에 의해 이미 인터넷에도 온갖 탄압이 가해지고 있었다. 아직도 학교 안에서의 게시물은 전부 학교 측의 ‘검인’ 도장을 받아야 하고, 아직도 오승희 같은 청소년 언론은 ‘교칙 위반’에 해당한다.

필자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캠퍼스 내에 난무하는 상업광고 게시물들을 반대하는 것인가... 역시 아니었다. 학생들이 붙이는 벽보나 게시물들은 학교의 외관이나 이미지를 망치기 때문에, 새로 도입하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그 기능을 대신하고, 벽보나 게시물들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세상에, 진리와 자유의 공간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의사표현 수단을 ‘더럽다’고 생각하다니. 그리고 학교측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들을 맘대로 철거했다. 학생회에서 내건 ‘등록금 투쟁’ 관련 플래카드를, 그것도 백주대낮에 철거하는 모습을 봤다. 필자가 잠깐 회장으로 있었던 동아리의 홍보 게시물도, 붙인 바로 다음날 보니 사라져있었다.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로인 현실

청소년들이 뭔가를 해보고자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다. “그런 건 대학 가서나 해!” 필자,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대학의 상황은 좀 나은 줄 알았다. 오냐, 좋아, 내가 대학에 가기만 하면 내 모든 자유를 쏟아부어주마, 하고 다짐했다. 2와 4분의 3년 전 고3이던 필자가 대학에 와서 느낀 건, “아 슈! 발 뉘였잖아!” 대학도, 별반 상황이 다르지가 않았다.

언젠가부터 ‘클린캠퍼스 운동’이란 게 진행되었는데, 필자는 처음엔 이게 무슨 캠퍼스에서 쓰레기를 줍자던가 하는 운동인 줄 알았다. 아니었다. 벽보와 게시물들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게 이 운동의 골자였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더러우므로’.

언론은 사회의 의사

몸이 아프다. 그럼 어디로 가야하나? 어디긴, 병원이지. 아니, 약국이나 한의원을 갈 수도 있겠다. 스스로 진단해서 약을 사먹고 간단히 낫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가의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웬만하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게 좋다. 몸속에 종양 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약국에서 약 타다 먹고 나을 리가 없지 않은가.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고, 약물치료가 가능하다면 약물치료를 받고, 그런 것이지. 그런데, 진단을 내릴 의사가 없다면? 뭐가 문제인 줄도 모르고 시름시름 앓다 죽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다. 혹은, 의사가 자유롭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종양을 종양이라 하지 못

하고 병변을 병변이라 하지 못하는 의사는 청소년을 위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옳지 않을까.
아마 오진을 하겠지. 엄청나게 위험해지는 것이다. 인기리에 방영 중인 미국드라마 『하우스』에서 ‘하우스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의사의 일이란 그런 거지.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면 누군가는 죽게 되어있어.”

그 자신이 오진으로 인해 한쪽 다리를 잃은 바 있기에, 하우스 선생의 말은 자못 비장하게 들린다. 그런데 왜 갑자기 생뚱맞은 의사 얘기냐고? 바로 여기에, 청소년 언론자유 의 필요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진단하는 것은 의사다. 그리고, 사회를 진단하는 것은 다름 아닌 언론이다. 진실되고 자유로운 언론이 있는 사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회는, 그래서 건강하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에는 저마다를 대표하는 신뢰받는 언론이 있지 않은가. 영국의 BBC, 미국의 뉴욕타임스,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슈피겔... 물론 여기에 소개하지 못한 수많은 좋은 언론도 많다. 어쨌든, 이것이 선진국을 뒷받침하는 언론의 힘이다. 한국 사회는 아프다. 특히, 학교는,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는 더더욱 아프다. 어른들이,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도 진단을 포기한 채 내버려두었던 이 병든 사회를, 청소년의 감각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옳다.

좋은 의사가 많은 사회는 건강하다.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된 사회는 건강하다. 근시안적이고 고압적으로 청소년을 내려다보는 태도들이, 이제는 정말 제대로, 멀리 내다보는, 그리고 정말

청소년 언론 자유의 현주소 : ‘거짓말’과 ‘권고’

#1 거짓말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아니, 이제 졸업도 했고 이 글은 좀 한 발 떨어진 입장에서 쓰는 글인데다가 이 글의 대상은 제가 그다지 존경하거나 친하거나 하지 않는 몇몇 분들이니까 그냥 “어느 교사”이거나 “당신들”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제가 한 거짓말을 좀 고백하려 합니다. 학교 안에 두발자유를 주장하며 행동하자는 전단지가 뿌려졌을 때, 당신들은 평소 찍혀 있던 저를 교무실로 불러서 심문했지요. 이 전단지 니가 뿌린 것 아니냐구요. 저는 아니라고 했고, 그럼 누가 했는지 아냐는 질문에도 누가 뿌렸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짐짓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요. 그러자 당신들은 “증거가 없으니 더 따져 물을 수는 없지만 니가 한 게 분명해.”라는 태도로, 저에게 학생회라거나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전단을 허가도 없이 배포하거나 하는 건 교칙 위반이고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고 가르치려 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계획하던 저였지만 거기에 욱해서 “이런 걸 배포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이고 보장되어야 겠죠.”라고 말해서 당신들의 심증을 굳혀주었던 것은 저의 미숙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라구요? 하지만 행여 강제로 지문 검사라도 시킬까 두려워 목장갑까지 끼고 친구들과 뿌린 전단지였는데, 순순히 인정해버리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당한 폭력을 좀 피해보겠다고 한 거짓말이 더 나쁘니까, 아님 전단지도 못 뿌리게 하고 학교 입맛에 맞는 것만 뿌릴 수 있게 허가를 먼저 받으라고 하며, 언론의 자유를 눈 하나 깜짝 않고 탄압하고 증거도 없이 저를 교무실에 불러다가 용의자 취급하며 압박을 주던 당신들의 행동이 나쁘니까?

저의 이런 조심성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점심시간 강제자율 학습에 너무나 분노하여 중앙현관 앞 교정 한가운데에 커다란 종이를 펼치고 오가는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강제적인 아침·점심·야간자율학습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써서 중앙현관 바닥에 붙였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 10분 만에 어느 교사가 그 대자보를 떼어서 가져가버렸고, 그날 저녁에 바로 집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교감의 전화가 왔고 부모님의 압박이 시작되었지요. 부모님의 태도는 이중적이었습니다. “이딴 말도 안 되는 걸로 징계주면 학교 쳐들어가서 불 질러버리겠다.”라는 분노와 “그래도 속 좀 그만 썩여라.”라는 만류.

졸업 후에도 저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오답 승리의 희망 1호가 처음 나와서 뿌려졌을 때, 제가 받은 피드백은 독자들의 감탄이나 격려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익숙한 교사의 전화였지요. 그 전화는 졸업하고서도 또 이런 걸 왜 뿌렸느냐며 왜 ‘과거’에 얽매어 있냐고 제게 뭔가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로 화를 냈죠. 동시에 저는 교감이 뿌려진 오승회를 수거해 가서 태웠다(버렸다)고 했는지 태웠다고 했는지 기억이 긴가민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능청스럽게 “제가 글을 투고하긴 했지만 제가 뿌린 건 아니에요. XX고에 있는 학생들이 뿌렸겠죠.”라고 했죠. 뭐 저도 오승회를 같이 계획했고 글도 썼고 돈도 좀 냈지만, 아쉽게도 졸업한 직후 1호 배포되었으니, 제가 뿌린 건 아니란 말이 100% 거짓말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하여간 저도 좀 놀랐습니다. 졸업한 제게까지 압박이 들어올 줄은 몰랐거든요. 이미 졸업했는데도 제가 그때 거짓말을 한 건, 당신들이 상대할 것은 나뿐만 아니라 더 있다는 걸 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순간적으로 그런 추궁을 받을 때 부인하고 보는 습관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섭지요.

이상이 제가 당신들에게 했던 거짓말들입니다. 그것들은 거짓말인 동시에, 당신들로부터 저희의 표현의 자유 /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작은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p.s 거짓말은 아니지만, 또 하나 좀 찢리는 일이 있긴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학교 앞에서 방학 보충수업 끝낸 학생들이 나올 때 두발자유 집회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덩치 큰 교사가 매를 들고 나오면서 제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데, 택시를 잡아타고 도망쳐버렸단지요. 뭐 그때 부르는데 대꾸도 안 한 건 약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 교사도 저를 위협한 걸 미안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요.

2008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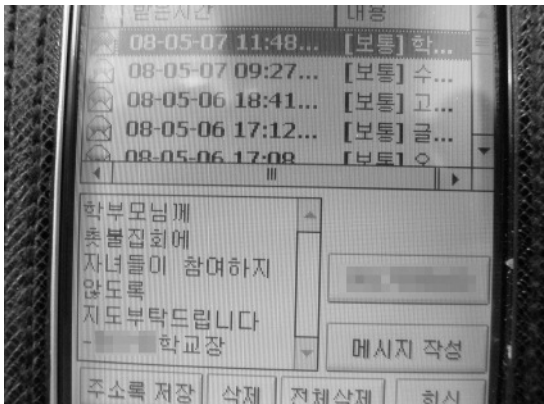
from.당신들 직장에서 학생이었던 사람

#2 ‘권고’에 불과한

올해 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가운 결정이 나왔었다. 학교에서 학생인권 토론회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학생을 학교에서 징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 /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전단지 배포 등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란 단지 뭐 신문을 만들어내고 출판을 하고 이런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이나 어떤 사실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들을 자유를 모두 포함

하는 개념이다. 그렇기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는 “말이나 글, 예술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경과 관계 없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요청하며 주고 받을 수 있는 자유”라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또는 초중고등학생)에게도 말하고 듣고 표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 당연한 원칙은, 무참히 씹히고 있다.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했다고 해서 징계하겠다고 협박하고 서명용지를 뺏어가는 일 등은 너무 흔하게 일어나서 뉴스거리도 못된다. 학교에 포스터 등을 붙이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현실도 계속된다. 입시폐지 요구 행사 포스터를 붙였다가 학교로부터 온갖 탄압을 받은 학생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조그맣게 알려진 적도 있다.



▲ 학생들이 문자를 돌리며 촛불집회에 참가하자, 그들의 말할 자유를 막기 위해 교장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

올해를 뜨끈뜨끈하게 데워주었던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도 사례들이 넘쳐난다. 5월 17일에 이명박에 반대하는 휴교시위를 하자는 문자가 돌았을 때, 경찰에서는 그 문자를 많이 받은 학교를 추적해서(대체 어떻게 추적한 건가? 영장도 없이 통신사를 통해 조회한 거라면 경찰 자체가 불법일 수 있다.) 그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짤막한’ 언론활동조차 못할 지경이다. 경기 상고의 한 교사가 수업 시간에 광우병 문제 등에 관해 다른 의견을 말한 학생을 체벌한 유명한 사건은 상황이 막장임을 잘 보여준다. ‘사랑의 매’(?) 앞에서, 우리는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조차 봉쇄당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알려진 사례는, 일제고사 반대 기자회견에 참가했던 청소년을 학교에서 복도에 무릎 꿇고 있게 하는 부당한 체벌을 가하고 징계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진술서 작성을 강요한 일이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는 이상, 청소년들이 드러내놓고 인터뷰를 하거나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에 참가하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여러 단체들이 그런 부당한 징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니까 학교가 징계는 안 하겠다고 한 발 물러난 게 다행일까.

‘권고’와 ‘명령’의 차이는, ‘권고’는 씹어도 좋다는 것이다. 인권위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했다. 소중한 권리를 재확인한 것임에도 거기에는 큰 힘이 없었다.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고, 남들 학교 안 왔을 때 몰래 전단지를 뿌려야 하고, 말을 아끼고 얼굴을 가려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청소년들은 계속 전단지를 돌리고 포스터를 붙이고 서명운동을 한다.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 글을 쓰고 행사에서 발언을 한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 직접 행동하며 권고에 불과한 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오승희는 언제나 지지를 보낼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

2006년 가을, ㅈ시의 아무개 고교에 전단지 수백장이 뿌려졌다. B5 4면으로 된 전단은, “폭력의 회전목마를 멈추자”라는 제목을 가진 글을 담고 있었다. 그 글은 기숙사에서 3학년들이 1, 2학년들에게 단체기합을 가한 사건을 비판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그 학교에 있던 인권 동아리에서는 이 전단을 뿌리며 서명운동, 교장/사감 등에게 요구서 전달 등의 활동을 펼쳤고, 이 사건은 한 청소년신문에 보도되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단체기합을 주도했던 사생회 측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들은, 그 학교의 신관 강의동 대강의실에 인권 동아리측 학생들을 끌고가 둘러싸고 이렇게 말했다.

“학교 명예는 생각 안 하나? 명예훼손이나 하는 것들이 무슨 인권이야?”

결국 그 기사는, 학교 이름을 스티커로 가린 채 배포됐다. 청소년신문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필화’였던 셈이고, 사생회 입장에서는 ‘학교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뻔한 사건’이었던 셈이다.

‘표현의 자유’는 ‘명예훼손’과는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자유

로운 표현은 언제나 명예훼손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위에 소개된 어느 청소년신문 보도 사례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인터넷 댓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낙서 하나까지도 모두 명예훼손 문제에 걸릴 가능성을 안고 있다. 명예훼손이란 ‘법률상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제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형법 제307조에는 명예훼손죄를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揭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함부로 어떤 이를 모함하거나 근거 없는 말로 비방하는 등의 무책임한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조항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다.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다.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거야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규제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사실’이라? 이 법의 취지는, 이런 거다. 젊은 시절에 남의 물건을 훔쳐 감옥에 한 번 갔다온 A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앙심을 품은 B라는 이가 “저 놈은 전과자”라며 떠벌리고 다닌다. 이런 경우, 분명한 사실이더라도 B는 A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말을 퍼뜨리고 다녔으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애매한 법조문은 그야말로 ‘해석하기 나름’이다. 즉, 누군가가 ‘숨겨진 진실’을 캐내어 퍼뜨리는 것 역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공익성’이 인정되면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 ‘명예훼손죄’가 언론자유를 가로막는 ‘전가의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공익성’이라는 단어가 가진 애매함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는 명예훼손과 언론보도의 ‘공익성’과 관련해 이러한 판례를 남겼다.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참 판례 역시 애매하다.

법 조항이 애매하면, 그만큼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해진다.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그간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누르는 데 많이 사용되어 왔다. 기업체는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입소문을 차단하기 위해 ‘명예훼손’ 카드를 써왔고,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인터넷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 이를 활용해왔다. 얼마 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약칭 전사모)’과 5공 인사들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사건을 담은 영화 ‘화려한 휴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엽포를 놓은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다. ‘명예훼손’의 논리는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선거철에는 ‘명예훼손’이 ‘선거법 위반’으로 바뀌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도 한다. 어떤 누리꾼은 “ㅇㅇㅇ(아메바) = 단세포 생물이라는, 장난과도 같은 게시물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며,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아메바가 단세포 생물이라는,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특정 후보 비방이 될 수 있는 것은, 법규정이 애매하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명예훼손’은 법률상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맨 처음에 들었던 예와 같은 사례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존재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집단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웬만하면 남들 모르게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있다. 만일 그에 따르지 않고,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는 경우에는 가혹한 응징이 가해지곤 한다. 몇 년 전에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급식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에 표출한 한 학생이 퇴학당하기도 했고, 삼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수많은 회유와 협박을 견뎌내야 했다.

2002년에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일단 누군가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는 전 사회적으로 '배신자'라는 낙인을 받게 된다. 결국 그 집단의 사람들은 '표현' 자체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집단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게 된다.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고 또래집단에 많이 의존하는 입장인 청소년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 내부의 문제를 고발했다가 명예훼손이니 망신이니 그런 것들에 걸려 웬따 당한 사람들은 이런 회의에 찬 모습이 되지 않을까?

물론, '명예훼손'이라는 개념이 악용된다고 해서 '없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허점 없는 법이 어디 있나. 또한, 모든 '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최근에 자살한 인기 연예인이 생전 헛소문에 괴로워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런 류의 헛소문, 근거 없는 비방마저도 온전히 허용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무개념으로의 회귀'일 것이다. 분명 우리 사회에서는 근거 없는 뜬소

문, 사실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언론 보도, 악의적 유언비어 등이 많이 돌아다닌다. 2007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문화일보의 '신정아 누드' 보도만 봐도 그렇다. 당시 그 보도는 선정적이고 인권침해적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았다. (게다가, 후에 그 사진이 신정아 씨 사진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법적인 명예훼손 개념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신정아 누드' 보도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도 고전적인 고민거리다. 사회적 소수자에게 적대적·차별적인 이야기들이나 콘텐츠들도 무작정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보장해야 하는 걸까? 표현의 자유가 권력에 압박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이들을 압박하고 짓밟을 권리가 된다면? 여러 논란거리가 있긴 하지만, 이런 이유에서라도 '명예훼손'을 비롯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해 어떤 제한이 불가피할 수 있는 현실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된다. '명예훼손'이라는 개념을 아무데나 적용해서 '불편한 진실'들을 감추려 하는 행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인격권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사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용도로 쓰여선 곤란하다. 일단, 애매하게 돼있는 법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요건과 '공익성'의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가 문제가 아니라, 대상을 비방할 의도가 있었는지, 해당 사실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따져봐

야 한다. 또한 ‘공익성’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공익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글로 명확히 적어두어야 옳을 것이다.

특히 언론 보도에 관해서는, ‘언론중재법’을 좀 더 다듬어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자에 관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 뻔하지만 필요한 이야기다. 일단, 근거 없는 소문, 비방이 우후죽순 떠돌아다니지 않아야 하니까. 악의적으로 남을 헐뜯는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다. 홍세화 씨는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등의 저서에서 한결같이 ‘폴레랑스’를 외친다. 우리말로 ‘관용’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이 개념은, 타인의 생각과 인격을 존중하는 자세, 딱딱하게 법 규정만을 들이대지 않는 자세를 의미한다. 집단 내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집단 자체에 대한 비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 아닌가. 집단 내부의 일을 공론화시키지 않으려는 관습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편적 정의의 추구도 필요하다. 학교니까, 군대니까, 가정이니까, 이런 말로 그동안 덮고 지나온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이런 일들을 고발하는 사람에게 이 사회는 너무나 가혹했다. “정의”보다 망신이나 명예가

더 중요한 가치인가? 오히려 틀린 것을 공개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뻔뻔하게 ‘명문대’ 몇 명 보냈나 현수막 걸어놓는 것 보다는, 제대로 된 명예를 만드는 길 아닌가?

무엇보다도, 오승희 같은 ‘청소년자유언론’의 입장에서는,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딪쳐가는 게 옳을 것이다. 사회의식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도 아니고, 법 개정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사실 사람들의 의식이 성숙 어찌구저찌구, 폴레랑스가 어찌구저찌구 해도, 그런 의식의 성숙이나 폴레랑스의 정착은 말로 가르치려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직접 표현의 장을 열어두고, 공론장 속에서 부딪치고 때론 깨지고 연습해나가면서 생겨나고 자리잡는 것이다.

따라서 계속 부딪쳐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의 체제를 바꿔나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법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다. 자꾸 ‘시끄러워’질수록 사회적으로 담론이 더 크게 형성이 될 것이고, 이렇게 공론화가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물론, ‘필화’에 대한 위험 부담은 있지만.

덧.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결론짓는 거 아니냐고? 처음에 나온 예시, 그거 필자 이야기다. 필자는 소심한 겁쟁이라 스티커를 붙이긴 했지만.

같은 수능, 다른 자세



11월 13일 교육부 앞
▼ 수능시험폐지를 바라는 사람들

▲ 수능시험대박을 바라는 사람들
11월 13일 어느 수능시험장 앞



▲ 김상수 님의 DAUM 웹툰 『박대리는 사회부적응자』 27화 중

11월 13일 수능날, 언제나처럼 “2호선 타자!” “SKY 다이빙!” “수능대박”을 외치며 ‘재밋게’ 응원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시험을 보러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일까?

다른 한쪽에서는, 수능을 거부한 고3 학생이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입시경쟁교육이 계속되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니 입시폐지를 요구한다고,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 문 앞에 섰다. 피할 수도 즐길 수도 없는 것에 맞서 싸우기 위해.

“사노라면”은 잡글, 수필, 사는 이야기들, 에세이, 시, 메모, 단상, 그런 것들을 싣는 코너입니다.
말 그대로 “사노라면” 생긴 일들을 다루는 지면이죠. 사노라면 언젠가는 무슨 날이 올까요?

미처 피지 못한 혁명(?)의 꽃 〈마산용마고등학교 투쟁기〉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7월 10일 경남 마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인권과 관련된 11가지 요구사항을 가지고 촛불시위를 하려고 했다가 학교 측의 탄압으로 무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의 용의자(?)였고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 학교엘 입학한 것은 2007년 3월이었습니다. 하루 14시간을 학교에 갇혀있어야 하는 고등학교생활의 하루하루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고 그 때부터 제 머릿속 어딘가에선 학내시위라는 꿈이 자리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때가 아니니 나중에 저지르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아수나로라는 청소년인권단체에서 이런 저런 활동을 하면서 2학년이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고 본격적으로 학내시위를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었고 학내 인권

동아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이 괜찮을까 하고 고민하고 다른 활동가들과 의견을 나뉘본 끝에 ‘언론동아리’를 구상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깃발〉이라는 이름의 언론동아리를 용마고등학교 동아리 리스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동아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신문을 발행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학생인권을 요구한 서명운동이 동아리 내부에서 제안되었고 저는 이 제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서명지를 1·2학년 전 교실에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5월 26일이었습니다.

서명운동은 약 보름 만에 발각되었고 〈오마이뉴스〉에 첫 기사가 났고 아버지가 학교에 다녀가셨습니다. 학교에서는 당시 요구사

항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전혀 나아진 것은 없었고 생각보다 꽤나 이른 시기에 촛불문화제 형식의 학내시위가 계획됐습니다. 두발복장규제 폐지, 휴대전화 등 소지품검사 및 압수 금지, 체벌 및 언어폭력근절, 강제야자/보충학습 추방, 자유로운 동아리활동 보장, 학생회의 학교운영위원회참여, 등교시간 연장, 교문단속중지, 후문등교허용, 사설모의고사 때 학생의사 반영, 정치적 활동을 막는 교칙조항 삭제 등 11개 요구안을 가지고 7월 10일로 날짜를 정한 뒤 비밀리에 학생들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1·2학년 750여명 학생 중 반수 이상이 참여했던 서명운동과는 달리 직접행동이라는 부담감 때문이었는지 조직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도 백 단위 이상의 학생들은 조직이 되었습니다. 각 언론사에 시위 몇 시간 전에 연락을 돌렸고 아수나로 회원들도 밖에서 지원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 총 학생회 부회장(학교에서 저의 '감투'였습니다.)이 촛불시위를 계획했다는 사실이 선생들에게 알려져 버렸고 각 학급에는 촛불시위에 참여하지 말라는 선생들의 협박이 이어졌고 심지어는 교실 밖만 내다봐도 에어컨을 꺼버리겠다고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위는 무산되었고 아수나로 회원들이 밖에서 대신 촛불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인터넷 뉴스를 통해 전국으로 알려졌고 덕분에 상당히 귀찮고 괴



▲ 용마고 앞에서 시위를 하는 아수나로 회원들.

로운 여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징계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경위서를 쓰라는 압박과 함께 부모님은 계속 불려가셨고 저 또한 매일 몇 시간씩 교실이 아닌 교무실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무덥던 여름날에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더위를 먹기도 했습니다. 무슨 신문, 무슨 방송, 무슨 일보 등등에서 연일 연락이 왔고 인터뷰요청이 왔습니다. 그들에겐 이번 사건이 아주 훌륭한 기삿거리였겠지요.

덕분에 아는 사람만 아는 유명인사(?)가 됐지만 개인적으론 정말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그야말로 잣더미가 되어있었고 학교에서의 괴롭, 설 틈 없이 울려대는 휴대전화, 도와줄 것처럼 하던 사람들에게 맞은 뒤통수. 그리고 용마고 사건과는 별개로 아수나로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준비중이었던 인권대행진까지, 이렇게 살벌했던 여름은 제 생애에 있어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8월 25일 '교내봉사로 대체된 사회봉사 5일'이라는 중징계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미 2학년 1학기를 시작할 때부터 퇴학을 각오하고 있었던 터라 사회봉사 5일이라는 징계는 별달리 심적으로 부담을 주진 않았습니다. 징계로 인해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 중인 밤의마왕 씨

그 후로 학교에서는 최소한의 들은 ‘척’은 했습니다. 교문 ‘지도’에서도 심하게 잡지 않았고 두발검사도 한 번만 했고 보충학습과

야간자율학습도 예전보단 잘 빠집니다. 정말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지금은 “적어도 올해까진 더 이상 교내에서 직접행동은 못할 것 같고 학교에서도 유연한 입장을 보여준다면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든지, “이제 슬슬 공부도 좀 할 것”이라는 등의 ‘구라’를 날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학교는 바뀌지 않고 심지어는 학생의 날에 전교생 복장검사라는 만행을 저지르기에도 이르렀으니 저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밤의마왕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광 고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공동행동 “꽃들에게 희망을”

2008 경쟁교육반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공동행동

“꽃들에게 희망을”

서울: 11.21 6시 보신각
6시-7시 사전마당
7시-9시 문화제

전주: 11.15 5시 객사마당

주최: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공동주관: 2008경쟁교육반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공동행동 조직위원회, 공공부문사유학자지공통행동, 교육공동체나다, 노동자의힘, 한국민교육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전국청소년연합, 진보교육연구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청소년다함께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11월은 수능의 달? NO! 입시폐지의 달!

입시경쟁중단을 요구하고 지금 여기서의 행복한 교육을 요구하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의 올해 모토는 “꽃들에게 희망을”이다.

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남을 밝으며 기어 올라야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나비가 되어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위의 사진은 11월 15일에 전주에서 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행동)

<http://edu4all.kr>

조금 철 지난 이야기

조금 철 지난 이야기-

지난 5월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이야기

*

5월 28일 새벽 Y 경찰서로 연행당하다.

27일 저녁 명동에서부터 집회에 참가했는데, 서울 시청 쪽으로 갔을 때 전경들이 빙 둘러싸기 시작했고,

참가자들은 횡단보도 건너서 시청 앞 광장에서 평화롭게 해산할 수 있게 하겠다, 인도로 가겠다, 라고 말한 거 같았음.-.-;

전경들이 막아서고 있는 걸 비켜달라고 요구했고, 전경들이 길을 내어줌.

그런데 길을 비켜주는 척 하다가 다시 참가자들을 빙 둘러싸서 가로막았다.

같이 갔던 우리 일행은 그곳에서 빠져나왔었고, 중앙 무대 있는 쪽에 있다가, 같이 있던 활동가들과 함께 둘러싸고 있던 전경들 쪽으로 가서 촛불을 들고 사람들 연행해가지 말라고, 항의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를 점점 둘러싸더니 ㅸㅸ와 함께 전경

들 속으로 끌어 들여보냄...

(나머지 활동가도 같이 잡혔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풀려나왔다고 한다.)

풀어달라고 하자 일단 조사받고 확인되면 풀어줄 수 있다고 함.

계속 잡아끄는 거 뿌리치다 결국 연행버스 탑승됨. -.-;;

*

이런 경험 처음이야.

ㄷㄷㄷ

*

경찰서에 있는 동안, 계속 항의전화가 와서 경찰들이 많이 피곤해했다

*

결국, 한 열두시간 뒤인 오후 2시쯤에 나왔고, 나와서 보니까 인터넷 기사가 장난이 아니었다.

근데 나는 ‘여중생’이고 연행되면서 버스 창문 열고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했었는데, 난 그런 적 없어요..... -.-

이거이거 너무 여중생 이미지(?) 강조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쓴 거 아냐, 하는 생각이...

조금 철 지난 이야기- 하지만 지금도 할 수 있는 이야기

*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여중생’이에요. ‘지 못미’, ‘집에 가고 싶어요’ 하며 눈물 흘리던 여중생입니다.

*

오랜만에 그때 기억을 되살리며, 그때 썼던 글들 다시 읽어보고 하니, 기분이 이상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 싶기도 하고, 이것저것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기도 하고. 한참 똑같은 얘기한 거 같은데, 현실은 아직 안습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ㅎㅎ

*

이 글의 내용은 지난 5월의 일이니, 지금 다시 얘기하기에 확실히 조금 철 지난 이야기이지만,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그 때와 다를 바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

흠... 부슬부슬 비 내리는 소리가 들려요. 좀 길게 이것저것 써보려 했는데, 그냥 짧게 쓸래요.

연행된 청소년들을, 집회에 나온 청소년들을, 무슨 구호를 외쳤건 상관없이 어리고 약한 소녀로만 이야기 하며, ‘저 불쌍한 어린애들’로만 한정 짓는, 사실 우리에게 별로 관심 없는 언론들에게, 집회만 나왔다하면, 장학사 파견하고, 교사들 불러내서, 집회 참가한 청소년들 징계 주고, 10시면 집에 들어가라고 어찌구저찌구 떠드는 교육부나 그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감 선거 한다고 이러쿵저러쿵 말 많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은 까마득하게 먼 우주로 날려보낸 사람들에게,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를 출마시킬 수밖에 없게 만든 이런 이상한 사회에게, 매년 즐기치게 입시를 말하면서, 매년 입시 교육 안에서 죽어가는 청소년들은 이제 “늘 있었던 일/더 이상 놀랍지 않은 일”로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에게, ‘등교거부’한 청소년들한테 “여러분이 돌아갈 곳은 학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기자회견 나온 청소년들이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드는 학교들에게, 그 밖에 청소년들의 외침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들에게,

어퍼컷 한번 날릴게요.

[난다]

Show Me The 개념 코너는 대(對)안드로메다 개념 퍼주기 외교 중단을 요구하는 운동의 일환입니다. 다양한 개념글들을 받아서 공유합니다.(어떤 글이 정말 개념글인지 아닌지는 독자들이 판단하시길.) 쉽게 말하면 주장, 논설 등이 주로 실린단 말입니다;

촛불소녀, ‘도전’ 과 ‘희석’ 의 줄다리기

잠시 옛날이야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라거나 사회 참여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혹은 청소년들의 주체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단체들이 종종 1920년대 학생들의 항일독립운동이라거나 1960년의 4.19, 1980년 광주,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운동 등을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나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나로서는, 이러한 운동들이 과연 얼마나 유의미했는지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과연 청소년들의 권리가 인정되거나 쟁취되었는가? 혹은 이런 방식으로 청소년들(만)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공론화되었는가? 항일독립이나 민주화의 문제가 청소년들의 삶과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더해서 청소년들이 이야기하고 요구안으로 내걸었던 교육과 학교와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는 어디로 갔느냐는 질문이다.

‘성인’들의 역사는, 1920년대 항일독립운동이나 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에서 청소년들이 내걸었던 교육에 대한 요구,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요구 등은 잊어버렸다. 그들의 운동은 단지 독립운동이고 민주화운동일 뿐이었으니, 사학재단의 비리와 교사의 체벌폭력까지도 독재정권과 연관 지으며 투쟁했던 80년대 고등학생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묻혔다고 밖엔 할 말이 없다. 묻힐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조건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간 묻혔다는 건 확실하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선명한 주장 없이 청소년들이 거대담론(민족독립이든 광복이든) 속에 뛰어들면서 했던 정치적인 활동들이,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나 지위를 증진시키는 데 명확하게 기여한 것 같지도 않다.

다시 지금 이야기 : “촛불소녀”

그리고 나는 2008년 촛불집회의 현장에서 그런 복잡한 문제를 생각한다. 광우병 이슈에 묻혀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묻혔다는 것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그래도 일단은 촛불집회 자체에서 사람들이

청소년들의 정치적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에만 집중하도록 하자.

많은 사람들이 5월에 촛불집회를 처음에 시작한 주역은 청소년들이었다고 말하며, 청소년들이 역사적 주체이고, (독립운동, 4.19, 광주, 민주화운동 등의 양념과 함께) 대단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여기서 ‘어른들’이나 ‘비청소년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라 한 것은 실수가 아니다.)이 이야기한다. 오죽하면 청소년들까지 나오겠느냐고 말하고, 청소년들이 기특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무슨 죄냐고, 어른들이 해주겠다고 말한다.

이처럼 집회현장에는 아이들/청소년들에 대한 이중적 시각이 혼재해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의 ‘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그들을 대상화하려고 한다. 내 눈에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힘과 역할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축소시키고 청소년들의 정치적 활동을 예외적인 것으로 한정하고 이를 기존 사회의 틀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두려는 마음들이 엿보인다. 청소년인권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촛불집회 현장에서의 청소년들에 대한 태도는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보수적이다.

‘미성년자’(차별적인 표현이다.)는 부모 동의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촛불집회 웹 홍보물, 밤 10시 이후에 ‘미성년자’는 자진 귀가시키겠다는 방침,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라는 나눔문화의 종이피켓과 집회현장에서의 구호들, 중고등학생들의 등교거부는 백안시하면서 대학생들의 동

맹휴업은 지지하는 ‘여론’, 등교거부를 포함하여 청소년들의 행동을 알리는 홍보물을 삭제하는 안티명박카페와 정책반대시민연대 카페 운영진, 예비군이라고 칭하는 남성들의 여성과 청소년 등은 뒤로 물러나라는 폭력적인 행동 방식들, 집회가 경찰과의 충돌로 좀 위험한 상황이 될 거 같으면 가끔씩 다가와서 말을 걸며 위험하니까 그만 집에 가라고 ‘반말로’ 말하시는 어르신들, 연행자들 중에서 ‘미성년자’는 석방하라는 구호들, 연행되는 여성 청소년의 사진에, 사실과 다르게 “집에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캡션을 다는 신문 기사들(이건 청소년과 여성이 중첩된 보호주의의 발로일 것이다.), 초등학생 연행에 분개하며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 대상화는 완고했다. 거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도전’조차도 흡수할 정도로. 마치 청소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 도전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는 듯이. 밤샘시위를 할 때 만들어진 토론의 장에서 한 청소년이 청소년들에게 함부로 반말을 쓰는 사례라거나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 구호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 발언에 대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박수와 환호였다. 박수와 환호가 무슨 문제냐고? 그 박수와 환호가, 그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청소년이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특하게 생각하고 응원하는 듯한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또한 나눔문화의 구호를 패러디해서 “어른들이 무슨 죄냐, 청소년이 지켜주자”라는 문구를 락카로 새기곤 다녔지만, 그 문구를 본 한 촛불집회 사회자

는 “자신들이 지켜줄 테니 어른들은 마음 놓고 촛불을 들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어른들이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자.”라고 발언했다. 몇몇 사람이라도 그런 청소년들의 문제제기에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는지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 전반적인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다.



▲ 지난 8호에 이어 다시 출연한 “촛불소녀?”

촛불소녀는 촛불집회 속에서 청소년들의 지위를 나타내는 아이콘이었다. 간단하게 해석하면, 촛불소녀는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촛불집회의 공간을 열고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는 아이콘이다. 또한 촛불소녀가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언되고 다양한 표정의 이미지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때, 촛불소녀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이미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촛불소녀는, 청소년들의 정치적인 도전을 희석시키는 많은 지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촛불소녀는 학교의 두발규제와 복장규제에 딱 맞는 머리 모양과 단정한 교복을 갖춰 입고 있으며, 순수하면서 또 당찬 ‘소녀’의 이미지를

어필하고 있었다. 촛불소녀는 현재 집회현장이나 운동 속에서의 청소년들의 지위에 관한 문제의식이 결여된 문제작이었으며, “촛불”이라는 상징(비정치적인, 순수한 기타 등등과 연결되는)과 “소녀”라는 이미지를 내세움으로써 지켜줘야 할 약자, 혹은 순수한 존재로서의 (여성) 청소년의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기획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덧붙여서 ‘촛불소녀’를 만들어서 유포한 나눔문화가 촛불소녀를 만들기 전부터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라는 점, 또한 촛불소녀 기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 〈촛불소녀의 코리아〉 카페의 공지에 올라가 있는 글 중에는, 우리 10대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었다며, 청소년들의 행동을 감쪽하다고 표현하는, 시선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글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촛불소녀”라는 상징의 내용과 뉘앙스를 받아들이는 속에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주의적/차별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촛불소녀 자체의 죄이건, 아니면 사회적 현실의 죄이건. 촛불소녀는, 청소년들의 도전과 이 사회(청소년들 자신도 포함한)의 희석이 만난 결과물이며 줄다리기 과정에서 나온 흔들리고 변화하는 아이콘이다.

뒤늦게 설명하는 “왜”

여기까지의 내용을 잘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나열한 여러 사례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청소년 보호주의에 대한 비판

이라거나 그런 인식들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잘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게 좋은 건데 뭘 그리 까칠하게 구는지 불쾌해 할 사람도 있을 지도 모르겠다.

일단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문제만으로 한정해서 말하자면, 청소년들의 정치적 행위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청소년들의 정치적 행동에 일정한 제한을 두면서 통제하려고 하는 방식(밤늦게 들어가라고 하는 거라거나, 등교거부·휴교시위에 대한 반감이라거나)들은 너무나 한계가 많다. 딱 잘라 말해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증진시키고 청소년들에게도 해당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물론 지금의 한국 사회는 비청소년들도 그다지 민주주의를 누리진 못하고 있다.)를 실현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서는 불가능하다.



▲ 2008년 6월, 쥐박이를 잡아라 쥐뿔놀이 1인시위 플래시몹 때 한 청소년이 들고 나온 피켓.

계속 억압받아 왔기에 2000년대 이후로 종종 드러나고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행동이 지금 시점에서 특별히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한다면, 또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행동을 비록 지금까지는 부당하게 유보되어 왔지만 당연한 것, 잊혀진 권리가 자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잊혀진”이란 표현은 물론 비유이다. 권리는 되찾아지기보다는 창조된다. “잊혀진”이 이중피동이며 “잊힌”이 옳다는 판지는 보류한다. “잊힌”보다는 “잊혀진”이 더 멋있지 않은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분명 정치적(사회적, 경제적) 약자이다. 그러나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주고 약자이기 때문에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약자인 청소년들이 어떻게 약자가 아닌 지위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길 바란다. 그것이 보호주의가 내재하고 있는 한계이다. (또한 내 입장에 볼 때 그것은 ‘촛불’이 안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촛불집회와 청소년들을 순정, 순수, 정의, 희망 뭐 그따위 멋진 미사여구로 엮어서 포장하려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드러나는 한계들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지금, 청소년들의 권리를 위해서는 더 많은 도전이 필요하다. 이 사회의 희석과 한계선 곳곳에 부딪치는 도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나는 감히 “청소년은 촛불소녀가 아니다”라는, 자칫하면 촛불집회에 반대하는 뉴라이트가 쓴 것처럼 보이는 문구를 택할 것이다. 청소년은 촛불소녀가 아니다. 청소년은 촛불소녀의 프레임과 이미지를 넘어 더 나아가야 할 존재이며, 훨씬 더 정치적인 존재이다.

[공헌]

청소년의 유리천장

‘유리천장’이란 말이 있다. 이미지가 쉽게 연상되는 단어다. 듣자마자 머릿속을 짝 채워가는 있는 듯 없는 듯 투명한 유리과 끝없이 평행으로 펼쳐지는 천장. 솔직히 말하자면, 그다지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다. 껴붙어 볼 수 있는 유리과 공간을 억제하는 억압이 서려있는 천장의 조합이라니.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한식에 김치 대신 피클이 올라와있는 정도의 어색함이랄까. 하지만 그 뜻을 안다면 결코 단순히 어색한 단어라며 코웃음치고 넘어 갈수는 없을 것이다.

‘유리천장’은 1984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쓰인 <기업 내 여성>이라는 칼럼에서 처음 쓰인 용어다. 기업을 다니는 여성들이 남성에게 비해 승진이나 관리직에 진출하는 것이 매우 드물고 어려운 일임을 ‘유리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 의미에서 1984년은 특별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다. 왜냐고? 단순히 새로운 용어의 등장 때문에 특별한 해라고 칭할 수도 있겠지만 칼럼의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이 칼럼은 기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와 부당한 대우, 인권문제 등 여성이 겪는 차별과 장애물을

‘유리천장’이라는 용어로 확연히 표현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1984년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 여성들의 머리위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을 무겁게 짓눌렀던 ‘유리천장’이 윤곽을 드러낸 해이다. 그리고 1989년 당시 미국의 노동부 장관이었던 엘리자베스 돌을 의장으로 ‘연방 정부 유리천장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유리천장’은 서서히 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미국에서는 고위 임원직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되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유리천장’은 기업을 다니는 여성에게만 존재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해보자. ‘유리천장’이란 용어는 구속적인 느낌이 강하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천장이란 단어는 공간을 억제하는 억압이 서려있다. 특히 억제하는 그 공간은 하늘이다. 하늘은 무한히 올라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천장은 하늘의 무한성에 한계를 둔다. 즉 ‘너는 여기까지다’라는 느낌이 강하다. 유독 여성만이 한계를 가진 것은 아니다. 용어를 쓴 작가는 기업 내 여성에 국한을 뒀지만 이것은 모든 차별과 부당한 대

우를 통합하여 부를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된다.

수없이 많은 ‘유리천장’들 중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의 유리천장’이다. 필자는 여기서 잠시 청소년을 학생과 탈 학생으로 나눠본다. 특별히 두 부류에 대해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장소의 차이 때문에 잠시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

학생의 ‘유리천장’은 말할 것도 없이 학교다. 물론 두발규제와 체벌 등과 같은 인권문제도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 운영회의에 갈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유리천장’이 아닐까? 교육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다. 굳이 주체의 순위를 정해보자면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과 운영방침을 정하는 운영회의에 다른 두 주체는 끼는데 불구하고 학생은 끼지 못하고 있다. 기업 내 여성이 리더의 자리에 오르기 힘든 것과 학생의 운영회의에 끼기 힘든 것이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학생은 겉으로만 주체이지, 속으로는 자신이 어떤 교육을 받을지도 스스로 결정하기 힘든 상태이다. 이것이 학생이 가진 ‘유리천장’이다.

그렇다면 탈 학생이 가진 ‘유리천장’은 무엇일까. 사회다. 학교가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면 탈 학생이 가진 ‘유리천장’은 학생이 가진 ‘유리천장’보다 훨씬 단단하다. 무조건 학교를 그만뒀다면 색안경부터 쓰고 보는 사회, 청소년과 성인의 임금을 동일시 주겠다는 법이 제정됐음에도 무시하는

업체의 사장들, 그리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사회. ‘유리천장’을 부시라고 연장은 뚫는데, 그 연장이 전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연장이랄까. 그에 반하여 ‘유리천장’은 갈수록 단단해지는 추세이다.

일례로 올해 시행된 전국 중고등학생의 연합고사가 있다. 우리는 그 시험을 보면 어땠겠냐고 질문 받은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다. 기업으로 치자면 우리 그냥 제일 말단 직처럼 자신의 의견 한마디 적용시키지 못한 채 하라는 대로 하고 있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교육주체인 학생이 받는 대우가 이래서야 될까.

‘유리천장’은 점점 더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숨이 차고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발버둥을 치면 “어린놈들이 깎치지 마라”하고 질타 받는 사회다. 어디서부터 깨야 할지 막막한 ‘유리천장’이다. 솔직히 필자는 얘기를 꺼내기는 했지만 그 해결점을 도무지 제시할 수가 없다. 한국 사회내의 청소년이 가진 유리천장은 너무 깊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 하지만 우리들이 좀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면 깰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어른들이 알아서 ‘유리천장’을 깨라며 주는 연장은 결코 쓸 수 있는 연장이 아니다.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연장은 우리의 열정과 노력, 땀이 아닐까 싶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가 되어 ‘유리천장’을 깰 날이 다가오길 바라며 글을 줄인다.

[비영 (전국청소년학생연합 활동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시비 걸기

11월 3일은 “학생의 날”이다. 그리고, 학생의 날인 동시에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다. 11월 3일 “학생의 날”이, 2006년부터(라지만 국가 기념행사는 2007년부터 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된 것은,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격상이다. 법적으로 “기념일”이 “~의 날”보다 급수가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문들은 학생의 날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학계와 시민들의 요구 등으로 결국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 통과됨으로써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제정돼 최초로 국가기념일의 대열에 자리잡았다.”

(2008년 11월 3일자 헤럴드경제 기사 「‘학생의날’ 기념식을 왜 부산서…」)

여기에서 학계와 시민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청소년으로서 말하자면, 비록 법적으로는 그것이 격상일지라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는 좀 그렇고 그런 구석이 많이 있다. 시비를 걸지 않고는 못 배기게 근질근질한, 그런 불편한 구석들이 말이다.

‘학생독립운동’?

학생의 날의 유래는 일제강점기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9년 11월, 일제강점기에 조선 학생에 대한 불평등한 교육 차별과 억압이 극에 달하여, 일본 남학생이 조선 여학생을 ‘희롱’해서 그 동안 쌓여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와 광주에서 일본 남학생과 조선 남학생들 사이의 패싸움이 되고, 그 패싸움이 단체들의 개입 속에 전국적인 시위로 발전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이른바 ‘광주학생항일운동’이라 한다.

11월 3일 학생의 날의 유래가 이런 사건이니, 학생의 날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광주학생항일운동은 약간 다르게 보인다. 오히려 ‘광주학생항일운동’은,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근대 학교 체제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당시 학생들의 요구 중에는 ▲ 교내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학생대표자의 학교운영 참가, ▲ 학생들의 자치권, ▲

사상·학문의 자유 등이 있었다. 조선 본위의 교육 제도를 확립하라는 요구 또한 시대 상황 속에서 적합한 교육 내용을 요구하는 교육권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곧 그 당시 학생들이 외친 “독립”, “일제 반대”, “식민지 노예 교육 철폐”라는 구호 속에는, 애국심이나 민족의식도 강하게 작용했겠지만, 학생들을 복종적인 신민으로 만들려는 교육 속에 짓밟히고 실종되어 버린 인권을 찾고 싶은 마음과 제대로 된 교육을 원하는 마음이 녹아 있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11월 3일을 그냥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중요한 맥락을 놓치는 것이다. 1929년 11월을 단순히 학생들의 항일독립운동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당시 학생들의 상황과 요구들 중 많은 부분들을 편집해버린다. 그것은 또 11월 3일 학생의 날마다 학생들이 군사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요구하며 행동해왔던 수십 년의 역사를 지우는 일이다. 현재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은 억압과 차별 속에 살고 있는 학생-청소년들의 현실과 역사 속 학생들의 행동들을 단절시키는 것이다.

언제까지 기념만 할 텐가!

정부는 학생독립운동기념행사를 전국을 돌며 하고 있다. 작년엔 서울, 올해는 부산이다.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우리가 행사를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언론을 통해 보니 그 대략적인 모양새는 뻔하다.

우선 학생들을 각 학교에서 동원한다. 이 과정에서 봉사시간 등의 사탕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잘 알 수 없다. 봉사시간을 준다면 봉사시간 제도를 악용한 강제노동이고, 안 준다면 보상도 없이 학생들을 동원한 사악함이다. 학생들에게는 꼭 학교의 획일적 통제를 상징하는 교복들을 입힌 채로, 행사에 바글바글하게 참가시킨다. 그리고 우선 ‘당연하게도’ 국기에 대한 경례 등 국민의례로 행사를 시작한다. 모범·우수학생 수십 수백 명에게 표창장을 준다. 몇십 년 전에 학생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어떻게 희생했는지를 역설하고, 순국선열들을 기억하자고 한다. 거기에는 애국, 민족, 엄숙함 같은 커다랗고 무겁고 현재에 있어 도전적이지 않은 것들은 있지만, 학생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 요구와 교육개혁에 대한 요구는 없고, 저항이나 행동도 없다. 최소한 1929년의 저항정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촛불집회에 꾸준히 참가한 청소년들, 학내시위를 만든 학생들, 일제고사 반대 시험거부를 한 학생들에게 표창을 줘야 할 것이다.

비록 “학생의 날”이라는 명칭이 학생들의 저항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 이승만 정부의 두루뭉실한 작명이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명칭은 과거의 독립운동을 기념하자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보다는 나은 것이었다.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지만 그랬기에 더 여지가 많았다는 이점도 있었다. 학생의 날을 과거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로 하자는 것은 인권을 짓밟는 억압과 차별로 얼룩진 근대 공교육에 대한 학생-청소년들의 지속적 저항의 역사를 박제로 만드는 것이다.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학생의 날은 정말 학생들의 인권, 진정 제대로 된 교육, 그리고 청소년들의 행복에 대한 요구이다. 그러나

정작 그 주체인 학생들을 소외시키고, 촛불 집회에 나온 학생들을 연행하고 탄압하면서 ‘학생독립운동기념행사’를 할 자격이 정부에게 있는 걸까?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정책들은커녕 학생-청소년들의 삶을 더 빠르게 만들고 있는 정부가 하는 행사를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학생독립운동 재현의 한계

비슷한 맥락에서, 학생의 날에 여러 지역에서 곧잘 반복되어온 ‘역사재현’ 행사에서도 아쉬운 점들이 많이 보인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1929년 당시 과거의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 일제시대 옷들을 입고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어떻게 읽힐까? 언론에 사진 찍히기 좋은 그런 퍼포먼스가, 현재보다는 과거를 주목하게 하고 새로운 저항에 대한 상상력보다는 지나간 역사에 대한 막연한 향수를 자극하지는 않을까. 일제시대 하면 독립운동이 생각나고 민족이 생각나도록 학습당하는 이 사회에서, 민족·국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이용하는 국가의 의도에 팔려가는 한계를 가진 행사가 되지는 않을까.

80년 전의 독립운동을 재현한다고 할 때 주로 채택되는 장면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광주학생항일운동’ 자체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의 불편함이기도 하다. 여성

의 입장에서 ‘광주학생항일운동’을 보면 어떻게 될까. “일본 남학생이 조선 여학생을 ‘희롱’해서 그 동안 쌓여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와 광주에서 일본 남학생과 조선 남학생들 사이의 패싸움이 되고, 그 패싸움이 단체들의 개입 속에 전국적인 시위로 발전한 사건”에서, 그 여학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 사건은 흔히 민족감정을 자극한 폭력과 차별로만 이야기되지만, 여성에 대한 ‘희롱’(성폭력)이라는 점에서 성별 권력 문제이기도 하다. 동시에 그것이 남성들 사이의 패싸움으로 발전한 것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권력관계의 결과물이기도 했다. 여성은 스스로를 지킬 수도 발언할 수도 없는 약한 피

모여라!

주최 : 사회체육청소년정책연구소 광주지부, 광주출판문화연구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후원 : 한국교직원노조총합, 광주지부

역사재현 스토리

1929년 11월 3일, 지금으로부터 79년전...
그 당시 일제 식민지 시대였다.
일제 식민지로 실용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했던 조선 학생들!
어느날, 일본학생 후쿠다가 조선 여학생 박기옥의 땀가슴을 잡아 당기며 희롱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인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맞이하여
79년전 선배들의 용감하고 포스 넘쳤던 정신을 배우자!
2008 학생의 날 역사재현 퍼레이드!!

학생의 날 역사재현 퍼레이드
자원봉사단 모집 (봉사시간 10시간)

일시 2008.11.2(일) 12시~5시
(사전OT는 10월 25일(토) 10시30분~1시)
장소 금남로, 충장로 일대(사전OT는 조선대학교 서석홀)

봉사시간 10시간 수예(사전OT + 퍼레이드)
봉사내용_원하는 캐릭터 의상을 선택해서 입고 물품제작, 스토리 짜기, 퍼레이드, 길안내, 행사및정리 등
모집인원_중,고등학생 300명 (선착순 마감)
문의_062)434-2278, 070-8248-1318
신청_club.cyworld.com/1103stu
접수마감_2008.10.24(금)
퍼포먼스 모집분야_조선 여학생 00명 / 조선 남학생 00명 / 일본군, 경찰 00명 / 기모노 남,여 00명
각종 캐릭터 00명 등

모집 1. 나는 조선의 마지막 여왕, 조마제!
조선여학생 00명 모집

모집 2. 나는 조선의 마지막 여왕, 조마제!
조선남학생 00명 모집

모집 3. 나는 조선의 마지막 여왕, 조마제!
조선남학생 00명 모집

모집 4. 나는 조선의 마지막 여왕, 조마제!
조선남학생 00명 모집

모집 5. 나는 조선의 마지막 여왕, 조마제!
조선남학생 00명 모집

모집 6. 나는 조선의 마지막 여왕, 조마제!
조선남학생 00명 모집

모집 7. 나는 조선의 마지막 여왕, 조마제!
조선남학생 00명 모집

모집 8. 나는 조선의 마지막 여왕, 조마제!
조선남학생 00명 모집

모집 9. 나는 조선의 마지막 여왕, 조마제!
조선남학생 00명 모집

모집 10. 나는 조선의 마지막 여왕, 조마제!
조선남학생 00명 모집

▲ 올해 광주에서 한 ‘역사재현 퍼레이드’ 홍보물, “일본학생 후쿠다가 조선 여학생 박기옥의 땀가슴을 잡아당기며 희롱하는 사건”이라고 역사재현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다.

해자였기 때문이다. 여학생의 여성으로서의 피해는 민족적 분노에 기대어 표현되고, 그 민족적 분노는 곧 남학생의 행동으로 표현된다. 여학생을 피해자로만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행위성이나 여성으로서의 입장은 약해진다. 투쟁의 주체는 남학생이며, 여학생은 남학생이 구해내고 보호해야할 대상이다.

물론 당시에도 소녀회라는 조직이 있어 여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와 재현들은 그런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그려주지 않는다. 독서회나 성진회는 그나마 잘 알려져 있지만, 소녀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사건의 발단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서 여성으로서의 이야기들은 잘 기억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시대 여성들에게 강제된 실제적 한계들 때문일 수도 있고, 기억되는 역사의 편파성 때문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건 간에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1929년의 ‘학생독립운동’과 그것을 재현하는 퍼포먼스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저항 정신이란 것도 그저 계승하고 이어받을 것이 아니라 한계에 대한 분명한 비판 속에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도 실현되지 않은 그 당시의 외침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소중함이며 행동하고 걸어 나가는 소중함이다. 또한 과거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들을 넘어서서 새로운 저항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소중함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불편하다. 과거를 기념하는 학생독립기념일 혹은 학생의 날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행동할 수 있는 저항의 주체로 새롭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저항의 날이 될 수는 없는 걸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기대와 아쉬움 속에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의 자발적인 저항 덕에 지정된 날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다. 학생의 날은 그런 의미에서 특히 소중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소중함은 과거를 기념하는 소중함이 아니라, 아직

이따위 정치의 현실을 넘어, 넘어, 넘어 - 청소년 서울시교육감 후보 운동과 민주주의

2008년에는 서울에서의 첫 교육감 직선제가 있었다. 비록 지난 수년간 서울시교육감질을 해먹으며 경쟁과 인권침해의 외길을 달려오신 공정택 씨가 강남지역에서 물표를 받아 당선되어버리는 암울한 결과로 끝나긴 했지만, 제법 뜨거운 선거였다. 투표율과 결과는 안습이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지만 말이다.

이런 선거 결과에 무관하게,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이례적으로 기호 0번이 있었다. 무려 기호 0번 캐발랄 “청소년” 후보다. 청소년들이 만 18세 선거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하던 것을 넘어서서, 직접 출마해버린 것이다. 내가 그 소식을 접하고 느낀 감정은, 한 마디로 유쾌상쾌 통쾌! 물론 공탁금 5000만원(더럽게 비싸군;)도 없고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도 없어서 실제 선관위에 등록된 후보는 아니었다. 하지만 직접 규격에 맞춰 포스터도 인쇄해서 서울시내 선거벽보 붙어 있는 것들 옆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정책도 발표하고, 유

세도 뛰고, 선거운동은 제법 확실하게 했다더라.

그나마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이명박 정부 중간 심판 또는 촛불의 열기를 직접적으로 이어받은 선거 정도로만

생각했다. 촛불후보라고 자처한 주경복 씨까지 포함해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 6명은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말하면서 유권자인 학부모들에게만 어필하기 급급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들은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던진 것은 아주 적절했다.

이 글은 청소년 후보의 정책이라거나 청소년 후보 활동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려는 건 아니다. 다만 이번에 청소년인권단체들이 했던 서울시교육감 청소년 후보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들을 늘어놓아보려는 것뿐이다.

합리성과 미성숙의 신화를 넘어

나는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원론적인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신뢰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자기결정권과(그 확장팩인) 의견반영의 권리이다.

그런데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신뢰라는 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합리적이고 성숙한 인간들만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될 수 있다. 이 논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미성숙한’ 사람들은 민주주의 정치를 할 수 없다. 정치적 권리 제한의 논리로 돌연변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성숙한’ 인간만이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말에서는 좀 구라의 뱀새가 난다. 과연 그런 인간이 있긴

한 걸까? 아니,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부터가 대체 어떤 걸까?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대체 성숙함, 합리성,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는 것이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유럽, 미국 등에서 있던 여성과 흑인에 대한 차별에는 모두 여성과 흑인은 어리석고 비합리적이고 미성숙하다는 ‘과학적’ 근거들이 같이 다녔다. 지금에 와서는 교과서에서도 그건 편견이고 차별이라는 식으로 쉽게 말해버리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런 근거가 마냥 터무니없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에 여성이나 흑인이 열등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제시된 생물학적인 근거, 실험결과들은, 제법 그럴 듯했던 것이다.

물론 청소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는 차별적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사회적 존재 자체가 “미성숙”의 이미지와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인식조차 비청소년 중심의 사회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삶을 무엇이 성숙이고 무엇이 미성숙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에 권력관계가 내재해 있다. 어쩌면,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에 가해지는 제한 또한 권력관계의 문제일 수 있다.

그렇기에 사실 민주주의의 원리는 합리성 또는 합리적 인간의 신화여서는 안된다. 그 원리는 자신과 관련된 일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자기결정의 권리이며 그 문제가 집단적, 사회적인 것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반영의 권리이다. 어느 집단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그 집단의 합리성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집단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

치에 반영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며 사회적 권력의 문제이다.

그래서 나는 청소년들이 정치를 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특히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서 더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런 요구를 정당화하겠답시고 18살(또는 16살이나 17살?)이면 충분히 성숙하거나, 청소년들이 오히려 더 순수하게 판단할 수 있거나 하는 사족을 붙일 생각도 없다. 나는 그저 청소년들의 인권으로서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반영하고 실현시킬 통로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것이다.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

그러나 또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요구가, 청소년들에게도 비청소년들[어른들]과 똑같은 수준의 권리를 달라, 라는 이야기는 아닌 듯싶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어른들을 보자니 도저히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보안법 같은 것들도 그렇지만, 지금의 이 대의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선거 때에만 잠깐 사람들을 ‘주인’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민주주의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다. 지금의 대의제는 엘리트 정치, 대안 따윈 안 보이는 막장 정치, 선거 때 외에는 정치인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는 정치,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정치다.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텐가, 라는 말이 자연스레 나오는 정치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달라는 뭐 꼭 그런 방식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선거권은 중요한 권리이긴 하지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어쩌면 그 선거권을 좀 덜 중요한 권리로 만들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선거권 얻어봤자 이따위 정치일 뿐이라면 뭐에 쓰겠는가. -- 좀 더 일상적으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권 외의 다른 정치적 권리들이 실질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

(게다가 이게, 선거연령이 몇 살이어야 하나, 문제로 가면 모호하기 이를 데 없다. 선거연령이란 기준 자체가 편의적인 거라서 정당성의 면에서는 문제가 제법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후보 활동에서 내가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청소년 후보가 집단 후보를 표방했다는 점이다. 외국을 보면,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가상 후보로 출마하는 일이 간혹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대개는 특정한 인물이 후보로 출마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번 청소년 후보 활동을 한 사람들은 특정인이 주목을 받게 되고 영웅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청소년 집단 후보라는 개념을 들이댔다. 집단 후보? 도롱뇽이 원고가 되고 대선 후보도 되었던 환경운동이나 초록당의 도전 이후로 가장 신선한 충격이었다. 어느 한 개인의 대표를 내세우지 않고 청소년 모두가 후보가 되고 교육감이 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기존의 대의제의 틀에 청소년들도 좀 끼워달라는 식의 활동이 아니라, 사실 기존의 대의제의 틀에 대한

전복이었다. “전교조에게 휘둘리면 교육이 무너집니다.”라는 공정택의 현수막을 패러디해서 “어른들에게 휘둘리면 교육이 무너집니다!”라며 기자회견을 하는 기호0번 청소년 후보 활동은, 온통 그런 패러디와 전복을 뒤섞어놓은 캐발랄 센스로 가득하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후보가 되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도전들이 있기에, 더 많은 민주주의가 현실이 되어간다.

‘정치’를 넘어

마지막으로, 이번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활동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에서 보완되어야 하는 것을 몇 가지 주문해본다.

우선, 선거라는 계기가 있을 때마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계기성 이슈 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법 개정 운동, 이야기 만들기, 활동주체 만들기 활동 등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이 주제로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없는데, 이는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요구가 선거나 계기가 있을 때마다 반짝하는 활동이 되게 하고 있다. 정치적 권리 요구 그 자체가, 선거 때만 반짝하는 ‘정치’가 아니라 진짜 정치가 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요구는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체에 대한 문제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다, 식의 보편론을 제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청소년이 가정에서

다양한 감시나 탄압 등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서 법조문 상으로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은 가정에서 청소년의 지위라거나 독립성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나는 “서울시교육감 후보 기호0번 청소년”이라는 활동 방식이 이후의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운동에서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렇기에 아주 약간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내일’을.

[CSN]



▲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투표함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참고자료>

개발랄 젊은 청소년 후보의 출마의 변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젠 청소년이 직접 한다!

청소년은 유명이다. 사람들 눈에 보이질 않는다.

그렇지 않고서야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교육감 선거를 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제쳐두고 성인들한테만 ‘뽐아줍쇼’ 할 리가 없다. 우리가 안 보이냐? 아니면, 이거 혹시 어른들만을 위한 교육감 선거?

청소년은 유명이 아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분명 존재하고 있다. 눈 나쁘고 마음 둔한 어떤 사람들이 못 본 척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교육의 주체는 엄연히 청소년들이다. 성인들이 아니다. 뻔히 알면서도 제3자끼리, 심지어 당사자들은 빼놓고 하는 선거를 열겠다니, 이게 대체 뭐 하자는 짓거리? 하라는 ‘이명박 OUT’이나 할 일이지 왜 애꿎은 ‘청소년 OUT’을 하고 있느냐 말이다.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어른들 OUT’이다. 이젠 청소년이 직접 한다.

개발랄젊은후보 ‘청소년’은 정책으로 공약으로 청소년의 입장에서 진정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입으로만 청소년을 위하고, 실제로는 뽑히기 위해 나온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다. 무엇이 잘못 되었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는 삶 속에서 온갖 교육문제를 (슬프게도) 직접 겪고, 여기에 찌들어 있는 청소년들 자신이 가장 잘 안다.

입시경쟁교육 폐지, 청소년인권 보장 등 딱딱한 말은 집어치우고 그냥, 더 이상은 이딴 식으로 안 살겠다! 이걸 이루기 위한 게 우리의 정책이고 공약이다. 학교에 잡혀서 공부에 묶여서 가고 싶은 곳 못 가고 하고 싶은 일 못 하고, 선생이 때리면 ‘암전하게’ 쳐 맞고, 학생이란 이유로 내 머리카락 하나 내 맘대로 못 하고, 니들은(특히 고3) 인간이 아니라는 말에도 ‘예, 우린 인간이 아니죠.’ 수긍할 수밖에 없는, 더는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입시폐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청소년 인권보장 등 당장 이루기 힘든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뒤로 미루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뤄야만 하기 때문에 바꿔야만 하는 현실이기에 주장할 것이다. 인권은 현실을 핑계로 내팽개쳐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 잘못된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주장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드는 지금의 현실이다. 바꾸기 힘들다는 이유로 살인적인 현실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다.

청소년들은 알고 있다.

학교는, 청소년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는, 촛불을 대하는 이명박과 똑같다는 것을! 조금 순화해서 말하면, 지금의 교육감 선거처럼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금 나오는 후보들처럼 한두 군데 손 본 다고 될 일 아니다. 이미 곰팡이가 슬다 못해 스며버린 벽지 위에 새 벽지로 도배 해봤자, 그 안에 있는 곰팡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겉모양만 그럴싸할 뿐, 속 안의 악취는 여전하다.

법은 '야간학습 강제 금지, 보충학습 강제 금지'여도 뒷구멍에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다 하고 있는 것과도 비슷하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행복해지려면 학교가 학교여선 안 된다. 지금의 학교로는 결코 청소년이 행복해질 수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학교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학교가 가능해지려면, '나'보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더 중요한 사회를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회로 바꾸어야 한다. 특별한 걸 주장하는 게 아니다. 행복하게 배우고 인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을 존중하라는 것뿐이다.

청소년은 교육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여야 한다. 청소년은 더 이상 바뀌주길 기다리지 않는다. 예전처럼 "해주시지. 안 돼요?"

히이잉~"따위 안 한다. 연약한 척 하면 가차 없이 씹힌다는 걸 그간의 경험을 통해 똑똑히 깨달았다. 약한 척 때려치운다. 이젠 "해줘. 싫어? 그럼 비켜."다. 내숭을 집어치운 청소년의 강력한 포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첫빠는 후보 0번 '청소년'이다.

2008년 7월 17일

※ 출처 <http://csn08.tistory.com> 서울교육감 기호0번 청소년 후보 공식 블로그



▲ 7월30일, 공정택의 현수막을 패러디한 “어른에게 휘둘리면 교육이 무너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투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기호0번 청소년 교육감 후보들

가정환경 조사서, 물음받지 않을 권리

새 학년 새 학기, 새것이 아닌 책상 말에 나를 상큼하게 앉아 있노라면 어김없이 받게 되는 ‘그것’. 가정환경조사서. 십 몇 년 똑같은 걸 쓰다보면 꼼꼼히 쓸 노력 따위 하지도 않는다. “하루 이틀 써? 헐. (씩소)” 쓰기 귀찮은 건 대충 넘겨줄 줄 아는 센스를 유감없이 발휘, 다 쓰고 나면 대체 뭘 썼나 싶게 빈칸이 송송 나있다.

한자이름도 모르고, 집주소도 모르고, 엄마 아빠 핸드폰 번호도 모르고, 담임한테 하고 싶은 말도 모르고.... 아는 데 쓰기 싫은 것들도 비워져 있다. 집안 경제상태가 어떤지 체크하는 란이나 가족관계 란- 특히 부모의 학력 란. 쓸까 말까 하고 고민하다 보면 기분이 아주 더러워진다. 엄마아빠한테 난 뭐

라고 써야할지 모르겠으니 대신 써달라고 종이를 내밀었다가, 내가 멈췄던 칸에서 똑같이 망설이고 있는 걸 기분이 더럽다 못해 마음이 울컥울컥해진다.

내가 동생이 넷이다. (나까지 오자매다.) 초등학교 때 인간들이 ‘육남매’라고 하도 놀려대는 통에 동생 많은 걸 쪽팔려 했었다. 그래서 가족간에 바로 아랫동생까지만 적고, 나머지 동생들은 생을 갓었다.(미안해, 애들 아-;) 이젠 안 한다. 그 정도는 이제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 오히려 놀라는 사람들의 반응을 즐긴다(훗). 근데 “우리 집 못 사는데요.” 같은 얘거나 “울 엄마 초졸인데 요.” 같은 얘기는 도무지 잘 안 나온다. 전자는 내가 동생 많은 게 아무렇지도 않아진

현재 XX 초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가정환경조사서

가 족 관 계	관 계	부	모	기 타 가 족	
	성명(한글)			조부(유, 무)	조모(유, 무)
학 력	학 력			형 (명)	오빠(명)
	직 업			누나(명)	언니(명)
	종 교			남동생(명)	여동생(명)

<자료-한국여성민우회>

▲ 출처 : 여성주의 저널 일다 기사

것처럼 레벨업해서 괜찮은데, 두 번째 건 차마 못 하겠다. 그래서 엄마 학력 칸은 내게 있어 마의 한 칸이다.

동생들 경우처럼, 이것도 내가 레벨업 하면 해결될 일일까? 오기로 초졸이라고 ‘정직’하게 쓰고 난 뒤 커터칼에 마음 벤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내가, 엄마 학력 낮다고 이런 마음 느끼는 내가 모자란 인간이고 잘못된 거니까, 나만 바뀌면 해결될 일일까.

가정환경조사서를 보면 친한 친구가 누군지 적는 칸이 있다. 세 칸 정도 있나. 친구가 그래도 세 명 정도는 있어서 그걸 적는 건 어렵지 않았다. 같은 반에 같이 노는 애가 없더라도, 딴 반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같은 반은 물론이고 딴 반에도 친구가 없었던 애들은 그 칸을 봤을 때의 기분이 어땠을까. 적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 아이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차마 거짓말은 못 해 빈칸으로 가정환경조사서를 냈을 때, 그걸 보고 자신을 불쌍하게 여길지도 모를 담임을 생각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물음받지 않을 권리’를 생각하게 된다. 나에게 대한 (스스로가 느끼기에) 불편한 정보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요구받지 않을 권리. 말하기 싫은 건 안 말하면 되긴 된다. 하지만 묻는 것만으로도 폭력이 되는 경우가 있다. 대답하자니 마음이 커터칼에 베이고, 대답을 안 하자니 숨기고 싶어 하는 자신의 모습에 또 마음이 다친다.

나 가난해요, 울 엄마 초졸이에요, 나 왕따랍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가난 학력 친구관계 같은 부수적인 것과

상관없이 ‘나’ 하나만으로도 당당하게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다. 저판 걸로 상처 안 받는 인간상, 아주 바람직하다. 나도 되고 싶다. 레벨업 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묻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안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가정형편을 파악해줘야 도움을 줄 수 있나? 맞다. 하지만 그런 건 충분히 따로 물을 수 있다. “필요하면 슬쩍 찾아오렴.” 조희 종례시간에 말해서, 직접 도움을 구하게 할 수 있다. 얼마든지 방법이 많다. 한꺼번에 건어서 한 번에 파악하면 선생이야 편하겠지, 하지만 빈칸 앞에서 망설이고 상처받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알아서 레벨업 하길 바라지 말고, 선생들이 좀 더 사려 깊어지는 쪽으로 레벨업 하면 안 될까?

[엠건]

학생 체벌은 불가피할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겪는 억압과 인권침해는 꽤 지긋지긋하다. 지각을 해도 안 되고, 조퇴를 해도 안 되고, 듣기 싫은 수업 빠저도 안 되고, 결석을 해도 안 되고, 줄을 빼돌게 서도 안 되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도 안 되고, 졸아도 안 되고, 큰 소릴 내도 안 되고, 화장실에 마음대로 가도 안 되고, 핸드폰을 써도 안 되고, 머리카락이 좀 길어도 안 되고, 교복을 안 입어도 안 되고, 밥을 너무 많이 먹거나 적게 먹어도 안 되고, 이성 친구를 사귀어도 안 되고, 반항해도 안 되고, 흡연해도 안 되고, 컴퓨터 게임을 해도 안 되고, 장신구를 착용해도 안 되고... 해서 안 되는 일을 했다간 벌을 받거나, 때를 맞거나, 욕에 가까운 꾸중을 듣거나, 부모를 욕보이거나, 무릎 꿇고 반성문을 쓰거나... (나열해보니, 열 받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여러 집단 중에서 학교는 매우 순진한 편이다. 권모술수와 각종 연줄, 요행, 아부, 협박 등이 중첩적으로 존재하는 경제 집단(회사, 기업)에 비하면 학교의 그것들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매

우 표면적이고 단순한 형태다. 그래서 간혹 어른들은 '그래도 학생 때가 좋았다.'며 과거를 회상하거나, 학교생활에 불만 있는 학생들을 타이르곤 한다.

물론 졸업 이후의 사회 생활이 더 힘들기 때문에, 학교에서 겪는 억압과 인권침해는 괜찮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 존재하는 억압과 구속, 인권침해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나 자신이 학생을 체벌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체벌의 불가피성에 대한 약간의 변명을 해 보려 한다. 그럼에도 한 때 교육부가 했던 것처럼 '부끄럽지 않게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지름 1.5cm이하의 회초리로 몇 회 이하'라는 식으로 체벌의 강약을 두고 변명을 하지는 않겠다. 꽃으로라도 사람을 때렸다면 그것은 체벌이다.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게 해도 그것은 체벌이다. 체벌은 육체적 고통을 동반한 징계다.

학교는 민주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자신이 가르치고 싶은 방식으로 가르칠 수 없다. 내용과 형식의 큰 틀이 외부에

서 강제되며, 그 틀 내에서만 자율성이 인정될 뿐이다. 틀 내의 자율성조차도 비교적 최근에야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여전히 교사들은 학교에서 감시당하고, 통제 받으며, 강제된 질서를 벗어날 땐 징계 받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일부 자율권을 확대했으나,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수업지도안에 대한 검열을 거부하거나 일제고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조차도 못 마땅한 것이다.)

학생의 입장에서선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배우고 싶은 내용을, 배우고 싶은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약간의 권리도 없다. 자신을 억압하는 각종 규칙과 관습과 학습 내용과 학교에 대한 자기 결정은커녕 토론조차도 쉽게 용납되지 않는다.

학교의 비민주적 존재성 때문에 교사 개개인이 비록 ‘교육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학교의 억압적 기능은 애초에 불가피하다.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하려면 일정한 억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억압의 가장 손쉬운 형태가 체벌이다. 한편 참가 여부가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민주적인 듯 해 보이는 ‘학원’에서조차도 체벌이 존재하는 양상을 볼 때 문제 해결은 좀 더 복잡한 것 같다. 단순히 ‘학생들이 학교나 수업을 선택할 수 있’어도 체벌 문제는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체벌하는 교사가 더 인기 있을지도 모른다. 스파르타식 대입학원이 인기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학교가 아직 민주적이지 않다고 해서, 앞으로도 영영 민주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공

식적으로 학교의 운영, 더 나아가 한국 교육의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물론 교사에게도 그런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과서 토씨에도 간섭하려는 정부의 행태로 볼 때 아직 갈 길은 멀다.) 학교의 억압적 기능이 학교 내 구성원간의 문제를 넘어서, 학교 밖의 정치 경제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그 해결 역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

학교에 억압적 기능이 불가피하다는 두 번째 근거는 사회가 가진 억압적 기능에서 온다. 학교의 구성원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 밖의 다양한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입장의 차이가 학교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일반 사회에서는 법률과 도덕에서 우위를 가진 집단이 일탈하는 자들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감옥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있으면 ‘불법체류’라고 하며 그물총으로 잡아서 가두고 추방한다. 노동조합이 정부가 정해둔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불법파업이라며 때리고 잡아서 가둔다. 사람들이 밤늦게 촛불을 들고 차도를 점령하고 있으면 불법시위라며 물대포를 쏘고 잡아 가둔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잡아 가두고, 다른 사람을 때리면 잡아 가둔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다만, 학교는 많은 경우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범죄로 취급하기보다 미숙함에서 오는 실수라고 생각하며 학교 내부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일반인과 동일하게 처벌하지는 않는다.(이는 일정 정도의 유예로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 생활지도부가 경찰과 감옥의 역할을 대신한다. 미션스쿨에서 종교 교육을 거부하면 (육체적 고통을 동반한) 징계를 받고, 상습적으로 지각, 조퇴, 결석하면 징계를 받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 징계 받고, 다른 학생을 괴롭혀도 징계 받고, 벽에 낙서하면 징계 받고, 기물을 파손하면 징계 받고, 청소를 하지 않고 도망가면 징계 받고, 욕을 하면 징계 받고, 실내화를 안 신어도 징계 받고, 수업 중에 핸드폰을 막 쓰면 징계 받고, 집단 행동을 선동해도 징계 받고 이런 저런 각종 규칙을 어기면 징계 받는다.(징계의 수준은 간단한 훈계 및 반성문 쓰기부터, 육체적 고통을 동반한 사소하거나 심각한 체벌, 교내 및 사회 봉사, 부모님 소환 등 다양하다.) [학교의 각종 징계는 그 강약에 따른 구별이 무의미하다. 직접적인 체벌은 안 되지만, 반성문이나 벌점, 부모님 소환은 괜찮다는 식의 구별은 더 심각한 2차적 피해를 불러오기도 한다. 체벌보다 반성문 쓰기가 더 끔찍한 인권침해가 되기도 하고, 부모님 소환 등은 부모님에 의한 체벌을 유도하기도 한다. 차라리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간의 체벌과 훈육으로 정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체벌 대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또는 며칠이 걸리든 꾸준히 말로 설득하고 가르쳐야한다는 것 역시 구별이 무의미하다. 일상 교육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설득이 아니라면, 별도로 불려서 독립된 공간에 가둬두고 2-3시간 비슷한 이야기(잔소리?)를 들어야하는 것 역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낳기 때문이다.]

학생에 대한 일정한 유예 조치가 있는 만

큼 학교는 일반 사회에 비해 도덕적 기준이 더 엄격하다.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도덕은 이미 금전적 손익에 따른 법률로 바뀌어 오래다. 웬만큼 큰 일탈행위조차도 돈으로 보상이 가능하다.(유전무죄) 그러나 학교는 비인간적인 최소한의 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최상의 질서와 도덕을 기준으로 삼는다. 단지 친구들 간의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훈육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이에겐 거의 피해가 없지만 청소년 건강을 이유로 흡연을 금지한다던지, 용모의 단정함을 빌미로 두발 복장 규제를 한다. 교과서에 낙서하거나 찢는 것, 화투나 카드를 놀이삼아 하는 것, 만화책을 보는 것, 핸드폰을 소지하는 것 등은 학교가 아니라면, 징계나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위에 나열한 각종 억압적 규칙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의 자유, 두발 복장의 자유,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에 대한 억압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나머지 각종 규칙들도 자율과 자치가 이루어진다면 교사에 의한 억압이 필요 없는 영역도 많다. 하지만 모든 영역의 통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모든 규칙과 억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체벌 역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체벌을 자제하려는 교사들도 체벌 충동을 느끼는 몇 가지 사례를 나열해 보겠다. 체벌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도 해 보았지만, 너무 어렵거나 방법을 몰라서 체벌이라는 징계를 택하는 경우이다. 친구의 협박과 폭력이 두려워서 지각, 조퇴, 결과, 결석, 흡연, 폭력 등 일탈

행위에 끼어 있는 경우, 협박하는 그 친구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담임의 체벌(공권력?)이 더 무겁다는 것을 알게 한다. 상습적으로 담당 청소 안하기, 급식 줄 안 서기(혼자 많이 먹기) 등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반복할 때, 두어 번 타이르다가 고쳐지지 않으면 체벌한다. 장난을 빙자해서 학급에서 약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금품을 상납하게 하거나 갈취하는 경우, 두어 번 타이르다가 고쳐지지 않으면 체벌한다. 집단으로 폭력 서클을 조직하고, 평범한 학생들에게 심적 물적 피해를 주며, 교사에게는 거짓 말을 하는 경우, 체벌로 자백을 받고 징계한다.

다시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자면, 현재의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은 불가피하다. 학교의 성립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고 싶은 방식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싶은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전에는 억압적 수단이 교육제도를 지탱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미숙한 존재다. 올바른 도덕 또는 규칙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알고 있더라도 육체적 고통을 동반하는 징계가 없으면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방임적 교사가 있을 때는 약육강식의 동물적 질서가 학생 사회에 존재하게 된다.(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강제적 수단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약하거나 미숙한 학생들이 존재하고, 학생 사회는 이들 약자를 보호할 자주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의 억압적 수단이 대신 질

서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사족) 학교에서는 일체의 억압이 사라져야 한다. 가르치는 자도 배울 수 있어야하고, 배우는 자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둘은 평등해야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교사와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억압을 없애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체벌하는 자와 체벌 받는 자가 함께 행동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둘은 서로가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의 착취(소외)를 노동하지 않음으로써 끝낼 수는 없다. 이미 억압에 길들여진 교사와 학생이 당장 그 억압을 끝내는 방법은 학교에 가지 않는 방법뿐이지만, 이는 해결책이 아니다. 억압을 무릅쓰며 억압이 없어도 좋은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증명해야만 한다. 어디서부터 함께 시작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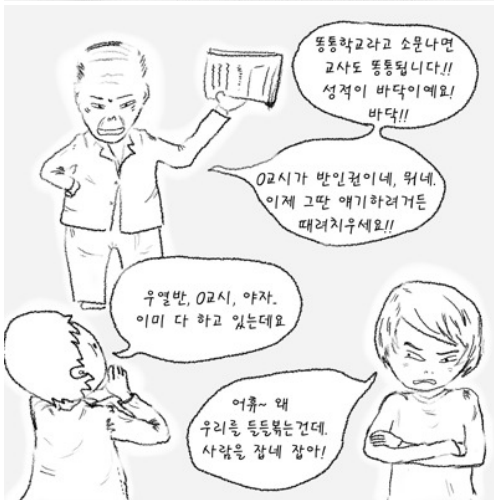
[경수중 교사 김성보]

안쉬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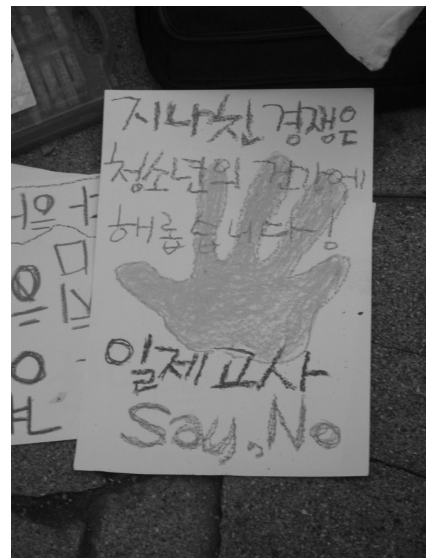
일제고사, 일제거부!



▲ 레디앙 이창우 씨의 일제고사 만평



▲ 인권오름 고달이의 「싱싱고교」 중



지난 10월, 전국 학생들을 줄세우는 일제고사에 반대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답안지를 백지로 내고 학교를 안 가는 등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행동을 했다.

전국에서 일제히 시험을 본다니, 일제히 거부해야겠지? ㅋㅋ 12월에도 중1, 중2 학생들의 일제고사가 있다고 한다. 또 다시 발랄한 거부 행동을 기대해본다.

(11월 일제고사-수능은 언제쯤 없어질까?)



오답노트는 틀린 답들을 기록하는 노트입니다. 그런데 답이란 누군가가 낸 문제에 대한 것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 코너에 기록되는 것들은 그 자체가 오답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감상이나 해석이 오답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 책, 음악, 기타 장르를 가리지 않는 리뷰 코너입니다.

울학교 이티



거의 최악이었다.

하지만, 이 사회가 가진 역설적인 가치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불만하다.

입시경쟁으로 파괴되는 교육, 입으로나마 이것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이 영화는 이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인식이 그렇듯이, 이 영화에서도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질문을 분리시킨다. 그것은 이 사회에서 ‘교육은 무엇인가’와 ‘학교는 어떠한 공간인가’라는 질문이다.

입시경쟁사회에서 시험을 잘 치르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누구나 그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승인하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인지 성적 이외의 다른 가치들도 중요한 것 마냥 이야기 하곤 한다. 예의 바라야 하고, 운동도 잘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건, 성적이 좋으면서 예의바르고 운동을 잘해야지, 예의바르고 운동만 잘해서는 아무 소용 없다. 난 학교에서 사람들이 이미 가치가 서열화되어 있지만 마치 그렇지 않은 양 행동하는 것이 가증스러웠다.

설사 공차는 재주가 훌륭한 가치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재주는 특권화 되고, 그 재주를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소외시킨다. 어쨌든 공부 이외 가치의 인정

도 다른 가치들을 깎아내면서 이루어 지는 것이었다. 또한 같이 몸을 부대끼는 것만으로 형성되는 끈적한 유대는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소외시키는 역할을 했다. 별다른 재주가 없어 체육시간이면 남는 공을 구석에서 어설프게 갖고 놀던 친구들은, 보통 학급의 의사결정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었다(못했었다). 이게 나만 특수하게 겪은 학교였을까?

그리고 그런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보면, 공부를 잘하던 아이들이 운동도 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갖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 더 가진다.

한편 나에게 체육시간은 꽤나 끔찍했는데, 내가 체육교과를 잘 못하는 걸 떠나서 똑같이 줄을 맞춰 서서 한 동작도 틀리지 않게 체조를 해야 하고 발을 맞춰 같이 뛰어야 하는 것들이 힘들었다. 누군가 한 동작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위에서 시키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짜증과 분노가 같이 뱅뱅이 치던 그 아이에게로 돌아간다. 학교는 우리를 그런 인간이 되도록 훈육한다. 하지만 영화는 ‘체육’교과가 축소되는 게 입시교육으로 인한 폐해로 언급되고 있다. 체육시간이 있던 시절에는 아이들이 즐겁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던 것 마냥.

‘체육’시간이 권위적이고, 전체주의적이라는 것은 영화에서 가장 밍상인 ‘차선생’의 입을 통해 제기될 뿐이다. 교육이 언어, 수리, 외국어 문제풀이로 환원되는 것은 문제이지만, 그 해결이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운동장에서 개개인의 체력적 차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뛰는 것이어야 할까? 이게 부당하다는 게 나에게는 상

식인데, 저런 내용으로 영화까지 만들어진 걸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납득이 되나보다. 입시경쟁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영화평들을 보며 한없이 불편해졌다. 이런 전체주의적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입시경쟁(개인을 개별화시키는)을 옹호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영화가 입시경쟁의 반대편을 단순화시켜 긍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전근대적 병영학교로 등치된다.

입시경쟁은 당연히, 사람들을 개별화시키고 나아가 파편화시킨다. 내가 한 등수 오르면 다른 누구는 한 등수가 내려간다. 이런 현실 앞에서 공동체적 연대는 묘연한 향수 같은 것일 게다. 영화는 그 향수를, 공부 못하지만 의리는 있는, 주먹 좀 쓰는 ‘남자’들에게서 찾는다. 그 ‘남자’들이 자신보다 약한 이들에게 행사하는 폭력은, 선생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체벌하는 것과 비슷한 선상에서 찬양(!!)된다.(이미 저건 합리화가 아니다.) 영화의 스크린을 통해 보여주는 세상은, 그런 것들이 되려 멋있어 보이게 한다.

고등학교를 다시 떠올려보면, 운동과 마찬가지로 공부 잘하던 아이들이 씹 잘하는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았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유대는, 역시 운동과 마찬가지로, 끈적끈적함에 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리시킨다. 그 선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서 더욱 긴장되는 이런 낯선 떨림은 중고등학교 내내 나를 괴롭혔다. 나를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이런 떨림이 잘 느껴졌다. 이 떨림을 잡아내고 재현한 유하 씨, 놀라웠다.) 학교는 그런 줄타기에 익숙해져 종국에는

무감각하게 해준다. 학교와 군대에서 길들여진(군대에 가지 않더라도 그 효과는 사회적으로 공유된다.) 우리는 참 다루기 쉬운 존재가 된다.

영화를 가득채운 남성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불편했다. 남자들이 여성을 지켜준다는, 특히 여성을 강간이라는 성폭력의 위협에서 구출해낸다는 저 환타지는 구역질이 났다. 사회적으로 강간에 대한 위협을 확대생산함으로써 여성의 행동을 제약하게 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여성을 보호해주겠다는 영화 속 당연한 발상은,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선생과 그대로 유비된다.

이렇게 세상에는 복잡다양한 관계들이 존재하지만, 영화와 같은 매체는 그것을 쉽게 단순화시키곤 한다. 천선생과 차선생의 대립 사이에서 구도는 쉽게 이분되고 모든 논점이 소거된다. 입시경쟁과 비입시경쟁의 대립으로 모든 차이를 삭제하고 나면, 선택은 최악과 차악의 논리 이상으로 펼쳐질 수 없다. 그나마 객관식도 보기가 2개에 불과해서야, 이건 5지선다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양편으로 갈린 공간 속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무엇인가를 택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는 그 두 가지 이외의 것을 사유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 강요 속에서 등치될 수 없는 것이 등치되어 버리고(비입시경쟁=병영학교), 그것이 어떻게 등치되었는지를 살피기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만 시선이 집중된다. 이분법은 그런 효과를 가진다. 영화는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을 모두 삭제하고 하나로 환원하고 있는 것이다.

입시교육은 잘못되었지만, 학교의 권력구조도 잘못되었다. 그 권력구조가 입시경쟁과는 독립적인 부분도 있지만, 입시경쟁이 권력구조를 강화하기도 한다. 영화가 생략하는 문제는 이렇게 얹혀있다.

그리고 입시경쟁이든 학교병영체험이든 모두 같이 가지는 특성은 그 가치들을 내면화시킨다는 점이다. 하지만 보다시피 그 두 가치가 잘 겹치지 않는다. 오히려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성적이 최우선이라면, 성적만 잘 나오면 되지 쓰잘데기 없이 복장·두발 검사를 왜 하는 것이며, 학교에서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사회성을 키운다는 허울 좋은 명목에 줄세우기는 어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다. 그런 것들을 섞어서 학생들에게 내면화시킨다. 사실 어느 쪽을 내면화시키든 상관없을 테고, 중요한 건 학교가 그런 가치들을 공급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구라는 점이다. 어떤 선생들은 자신들의 ‘교권’을 빼앗기고 있다며 과거를 향수하지만, 학교에서 내면화시키는 주된 가치가 옮겨갔을 뿐, 학교는 여전히 공적인 권력기구이다. 이런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세상은, 그리고 이 영화는 가증스럽다.

세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영화를 타는 건 별로 도움될 게 없지만, 그래도 영화는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도피해보고 싶은 이들을 겨냥하는 것도 있잖은가? (아마 이 영화는 나름 그걸 겨냥했을 거다.) 그래서 도피해보려면, 제대로 도피해 주면 좋겠다. 아니면, 보는 사람들이 제발 저런 내용 없는 신파에 웃음을 주지 말자.

[멍청이]

『열일곱 살의 털』에 관한 채팅

『열일곱살의 털』 (김해원. 사계절 출판사. 정가 8800원.) 누구나 제목을 보면 반쯤은 의아해하며 반쯤은 쿡쿡거릴 만한 제목의 책. 하지만 그 털은 의외로 열일곱 일호의 머리털, 모든 청소년들의 아프고 부당하게 잘려나간 머리털을 의미합니다. ‘두발자유화’ 문제가 소설로 만들어지기까지 하다니, 청소년들에게도 희망이 보이는 걸까. 실제로 두발자유 일인시위를 했던 이하람 씨의 이야기 등을 모티프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학교의 두발 규제가 새롭게 다가간다면 의미가 있을 텐데요. ^^

내용누설을 무릅쓰고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보죠. 이야기의 큰 흐름은 둘인데, 주인공 ‘일호’가 학교에서 두발규제에 저항하는 이야기, 그리고 일호의 집 안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일호 3대가 서로를 이해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흐름은 집을 20여 년간 나가있다가 돌아온 일호 아버지가 일호의 두발규제 반대 행동을 지지하며 학교에서 교사와 싸우게 되는 부분 등에서 서로 얹히면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일호 할아버지가

학교 이발소에서 두발규제에 걸린 애들의 머리에 별 모양을 만들어주며 두발규제에 대해 교장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을 전후해서 이 두 흐름은 하나가 되고,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입장 변화 등, 할아버지의 삶도 변화하게 됩니다.

편집진들 중에 열일곱살의 털을 읽은 스카이, 멍청이, 공현 세 사람이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열일곱살의 털』에 대한 오승희 편집진들의 생각은?

사회운동소설이라기보다 성장소설

멍청이 : 열일곱살의 털은 뒷부분이 좀 걸적지근 한데...

공현 : ㅇㅇ. 성장소설이긴 해도 사회운동적인 소설은 아니다, 라는 느낌?

스카이 : 분명히 사회운동 소설은 아니야. 그래도 항상 사회운동적으로 나가면 너무 무겁잖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도 힘들고 많은 사람에게 공감하게 쓰인 것 같긴 해. 사실 두발 자유가 그렇게 개인적인 희로애

락은 아니지만...

공현 : 읽다가 세대간 화해를 도모하려는 건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긴 했어. 청소년이라는 특성이 모두가 경험하는 정체성이고 모두가 언젠가는 잃는 정체성이라는 맥락에서 교장 별머리 에피소드라거나 그런 게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지, 하지만 실제로 두발규제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은 더 복잡해. 학부모들의 욕망이라거나 기타 등등. 사회운동적이지 않다는 건 두발규제를 비롯한 권력관계의 문제를 세대간의 화해라는 방식으로 약간 비껴가며 해결해서랄까?

스카이 : ㅇㅇ맞아

공현 : 그리고 이하람 등의 사례를 취재했다면 청소년인권이나 두발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원하는 단체나 그런 것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님?! (버럭)

‘아버지’는?

스카이 : 일호의 아버지는 이 사회에서 이상적인 어른상일까?

공현 : 글썄 그다지 주류에 맞는 어른 같진 않은데... 내 입장에서 볼 땐 그나마 괜찮은 어른 정도? ㅋㅋ

스카이 : 그나마 괜찮은 어른... 이어서 설득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건가ㅋㅋ

멍청이 : 꿈같은 캐릭터 같아. 확 떠나고 확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의 로망이다 싶은.

공현 : 20년씩 여행다니는 아버지라는 게 현실성이 없긴 한데 아버지의 부재를 만들기 위한 설정이랄까 그런 느낌도 있어. 일호에게 싸우고 협상하고 거부하면서 성장할 아버지가 없다고 쓴 게, 뒤에 일호가 학교-사

회와 싸워가며 성장하는 것과 연결된달까...

스카이 : 아버지가 너무 큰 힘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

멍청이 : 도식적으로 가르치면 주인공 아버지는 현실에서 도피했다 다시 현실로 복귀한 사례이고, 아들은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작가가 도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 도망갔다 돌아온 사람을 너무 쉽게 받아줘버린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소설이니까.

남자들만 나오잖아!

공현 : 좀 너무 남성네들 이야기야 ㅋㅋ

스카이 : 여자애가 한 명도 안 나오는 책은 처음인 것 같아, 웬지 이상하고 묘했어. 여자애들도 두발에 관심 많은데, 라고 말하면 너무 치기 어린 말이려나?

공현 : 남자들만 주역을 맡는 소설이란 거 자체가 욕먹을 일은 아닐지 모르지. 두발규제 자체가 서울의 경우에는 여학생들은 좀 약한 편이라서, 남자애들 일로 인식되는 탓도 있는 거 같아. 그런데 그걸로만 볼 순 없는 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비중이 너무 크고 할머니 어머니 비중이 너무 작아서 -_-;

스카이 : 어머니나 할머니 그냥 궁시령대거나 혼내는 역할이지.

온정적, 시혜적

멍청이 : 선생들 중엔, 체육선생이 전근대적인 인물. 근데 재밌는 건, 왜 그 학생주임, 실제론 어마어마한 가해자인데, 소설 속에선 상당히 온정적으로 다뤄버려.

스카이 : 맞아 뒷부분에서 황당했어. 그래도 학주가 온정적으로 비춰지는 건, 그래도 따뜻한 마음은 있단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멍청이 :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았어. 학주도 문학을 좋아하는 등등 그냥 ‘사람’이다. 시스템 속의. 그레놓고 소설은 시스템이 스스로 자기 오류를 수정하는 걸로 결말을 맺어버리지. 매트릭스 같달까. 네오 같은 애들이 오류 좀 수정해주고, 앞으로 더 잘 통제하고 뭐...; 그리고 보면 학주는 요원 좀 될 텐데 ㅎㅎ

이 소설의 가장 큰 맹점은, 결국 두발규제 완화가 ‘시혜’로 된다는 점인 거 같아. 하려면 무라카미 류의 『엑소더스』처럼 확실하게 공화국을 하나 만든다든가. ㅎㅎ

모범생 콤플렉스

스카이 : 난 여전한 모범생 콤플렉스가 걸렸어. 모범생들의 의식적인 반항, 이것도 어찌 보면 상하구조 아닌지. 왜 항상 이런 책이나 언론에서 반항하는 모범생인지... 이 책에서도, 문기현 있잖아. 그 애도 학원에서 높은 반이지만 낮은 반에서 한다고 반항하고 이 하람 인터뷰에서도 작가가 실제로 만나보니 모범생이라고 막 강조했고.

멍청이 : 그러고 보면, 여기서 반항 자체가 모범적이지 않나? 꽤나, 반항에 충실한...?;

스카이 : 그런 거 말고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범성을 갖추고 있단 말이지. 거의 성적. 반항의 세계가 모범생들의 세계라면 그 나머지 아이들은?

공현 : 저항을 분리시키는 거지. 더 번지지 않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총평~!

멍청이 : 작가가 문제해결 방식이나 문제의 원인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은 게 아닐까 싶었어. 그래도 학교내 권력의 질서가 유지되는 방식을 그려내는 건 좋았어.

스카이 : 분열됐던 세대가 다시 소통하게 됐다는 것과 학생들이 직접 투쟁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기엔 부분적일지라도 권리를 찾게 됐다는 것-즉 성과가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인 것 같아. 분명히 현실에서도 투쟁하는 전반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과정들도 있으니... 그런 걸 자세하게 그려냈다는 점이 좋았어.

공현 : 두발규제라는 인권침해 문제와 그것을 바꾸기 위해 싸우는 과정을 그리고 싶어 했다고보다는, 세대간의 소통이나 주인공의 성장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생각이 들어. 주인공 일호의 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책. 그리고 왜 남자들만 주역으로 나오는지 흑흑 (맞아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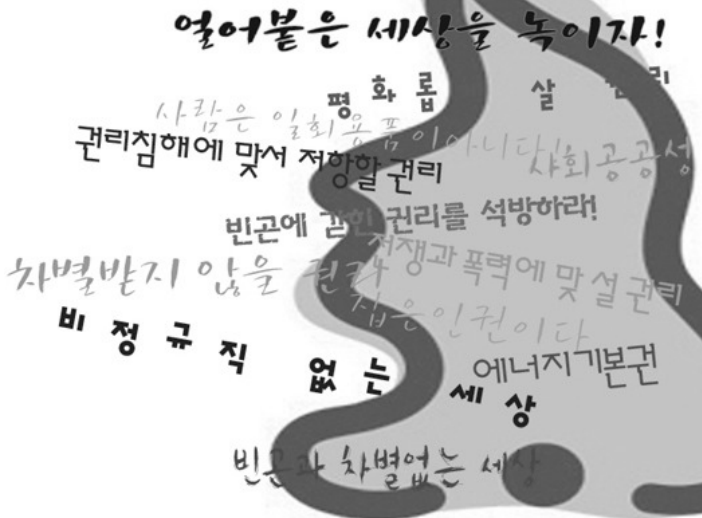
이상으로 오승희 편집진 세 명의 뒷담화였습니다. ^^

이 땅의 청소년 모두의 머리털 화이팅!

[정리 : 스카이]

<만원의 광고>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운동

세계인권선언60주년



더 자세한 참여방법
등은 2008인권선언
카페

2008 인권선언!

이미 환갑이 다 된 "세계인권선언"

그 속에 담긴 가치는 소중하지만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
인권들을 하나하나 콕 집어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든 인권선언!!

불씨가 되어 같이 얼어붙은 세상을 녹여보실까요? ^^

* 청소년, 에이즈감염인, 성소수자, 주거권, 비정규직, 기타 등등
분야별 릴레이인권선언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cafe.daum.net/2008humanrights>

에서 확인하세요 ^^

다양한 참가 방식들
이 있습니다~

2008 인권선언 추진위원회

cafe.daum.net/2008humanrights 2008hr@hanmail.net 02-365-5363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장내 희망

청소년들에게 지겨울 정도로 받는 질문. “‘장래희망’이 뭐니?” 그렇지만 사람들이 묻는 것은 대개 제대로 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직업이 무엇이나, 뭘 해서 벌어먹을 것이냐, 입니다. 또, 그런 질문의 뒤편에는 청소년들의 현재에 관한 무관심이 깔려있기도 합니다. ‘장래희망’이 아닌 ‘장내희망’은, 오승희 편집진이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서 만드는 오답스러운 ‘직업탐방’ 코너입니다.

Intro

프랑스(뭐, 프랑스가 아니어도 좋습니다.)에 살던 ‘장’네 가족이 한국에 왔습니다. 복지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장네 가족들은 대출한 돈을 까먹으며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며 살지 막막한 장. 그리고 그 가족들…. 장네 가족들은 우선 한국에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며 사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인 장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학교가 끝나자마자 우르르 어느 건물로 들어가서(때로는 단체로 봉고차 같은 걸 타고 가더군!) 밤 10시까지, 때로는 새벽 1시나 2시까지도 있다가 녹초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건물에는 “**학원”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죠. 장은 거기가 한국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곳이라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 건물에서 10시쯤에 나오는 여자에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그 여자에는 잠시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곧 장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기 시작해서 같이 학원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야기를 좀 더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경계심을 푼 것은 아마 장이 우연히도 백인이었던 탓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백인에게 관대하니까요.)

< 학원생 >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 한해 전국의 학원수강생(줄여서 학원생) 수는 약 458만5천670명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고려해봐야 정확하겠지만, 남한의 인구를 약 4600만으로 잡는다면, 무려 전국민의 약 10%가 가진 직업이 바로 학원생입니다. 학원생은 입사·보습학원 등과 요리학원, 댄스교실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직 학원생이었던 전북 익산의 한 여성 청소년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어 본 것을 토대로 가상 인터뷰를 꾸며봤습니다.

장 :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장이라고 합니다. 고향은 프랑스이고, 지금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중입니다.

어느 학원생 :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음… 이름을 말해도 되나? ○○○라고 해요. 그냥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구요.

장 :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건물에서 나오셨는데, “** 학원”이라고 써있더군요. 학

원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돈은 대충 얼마나?

어느 학원생 : 학원은 뭐, 공부를 하는 곳인데요. 돈은, 음 학원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다니는 곳은 좀싼 편이라서, 한 달에 20만원 정도 해요.

장 : (공부? study? travail?) 20만원?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한국 물가를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한 달에 20만원 벌면 학생으로서 좀 살 만합니까?

*주 : 프랑스어로 travail(‘드라바이’)는 일, 공부의 뜻.

어느 학원생 : 네? 20만원을 제가 버는 게 아니라 제가 학원에 낸다구요.

장 : 예!? 그게 무슨 말이죠?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안에서 일을 하면서 오히려 돈을 낸단 말입니까?

어느 학원생 : 제가 가서 공부를 배우는 건데 당연하죠.

장 : 공부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어느 학원생 :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어디 되나요. 다른 애들 다 다니니까 다니고...



▲ 설명을 듣는 장의 심정

장 : 그럼 학원은 언제부터 다니셨습니까? 보통 거기서 어떻게 무슨 공부를 하는 겁니까?

어느 학원생 : 유치원 때부터 미술, 피아노 학원 같은 거 다녔는걸요. 다른 아이들이 다 다니니까 저도 다녔죠. 유행처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입시학원에 다녔어요. 그전엔 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모 대학교 어학원을 다녔는데... 입시종합학원은 적응이 안 됐어요. 거기 선생님이 저한테 수학 못 한다고 얼마나 갈구던지. 결국 때려쳤는데, 중학교에서 성적이 개판으로 나와서 혼나고 입시학원을 다니게 됐죠. 그래도 적응을 못해서 자주 옮겨 다녔어요. 중학교 땐 유명한 영어 학원을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각목으로 그 좁은 교실이 모자랄 정도로 휘둘러서 패고, 숙제는 몇십 장 베껴 쓰기고, 못 해오면 음료수 한 박스 사오거나 더 맞거나... 어느 날 잘 못한다고 주먹으로 머리 한 대씩을 쳤는데 애들 다 울었어요. 집 앞에 학원을 잠깐 다녔던 적도 있는데 거기는 무조건 달달 외우라고 했어요, 설명도 안 하고. 선생님이 어떤 애한테 오늘 남아서 공부하라고 하니깐 그 애가 친구 만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친구가 중요해, 공부가 중요해?” 라면서 소리 지르고... 저한테 소설이 공부하는 데 독이 된다고 책을 멀리하라고 했어요.

장 : 요즘 프랑스도 좀 맛이 간 정부가 학교를 경쟁시키겠다 어찌겠다 해서, 8명씩 그룹으로 개인교습하고 그런 데가 좀 늘고 있긴 합니다만... 아카도미아 같은... 그래도 한국처럼

밤 11시까지 공부를 하거나 비인간적으로 대하진 않는데... 솔직히 어떤 문화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뭘 시추아시옹인지. 같이 학원에 다니는 다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 주 : 아카도미아는 프랑스 1위의 사교육 업체라고 한다.

어느 학원생 : 글쎄요? 그냥 다들 다니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공부에 뒤처지니까. 시험 성적 부담도 크고, 남들 다 다니고... 학원에 우열반도 있는데, 웬지 우반 아이들과는 잘 못 어울리겠어서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는 거의 항상 열반이고 -_-;

장 : 그런데 정말로 하루종일 학교-학원 이렇게 있는 겁니까? 다른 아르바이트 같은 건 안 합니까? 제게 추천해주실 일자리 혹시 없습니까?

어느 학원생 :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끝나면 집에서 데리러 오고, 숙제하고, 딱히 뭘 하는 건 없고... 주말에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수업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어서 서점에 가기도 하고... 가끔은 거짓말하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죠.(웃음) 친구 중에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도 있긴 한데요. 주로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근데 많지 않아요.

장 : 그 '학원'이란 데를 다니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니... 학원생이 무슨 전업이군요. (학원 건물을 보다가) 그럼 저기 학원에 걸려 있는 사람 이름들은 뭘니까? 잘 안 보이는데

어느 학원생 : 아 저거요. 학원가에 보면, 간판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저 현수막이에요, 명문고 명문고에 합격한 학생들의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놓은 거죠. 결국은 그렇게 경쟁의 우위에 서기 위해 다니는 게 학원이거든요. 학원도 저렇게 학생들 이름으로 광고하는 거고. 저희도 좀 맛이 간 애가 대통령인데 지금, 그 덕에 입시 압박이 점점 세지는 요즘 상황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아도 인기직종인 학원생은 점점 인기가 치솟아 거의 모두가 학원에 다니게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요된 선택'이죠.

장 :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학원생이라니, 새롭고도 끔찍한 문화군요. 시간 내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도 없는데... 아이스크림 값만 날렸군!)

어느 학원생 : 학원생이라는 직업은 결국 그냥 수동적으로 뱅뱅이 돌리며 공부하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모습인데... 그 어리석은 벽을 허물면 참 좋겠네요. 아이스크림 고마웠어요.

장은 한국의 학원생이라는, 청소년들 다수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 '정신이 멎해지는 것'과 아이스크림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알게 되었습니다. 장은 68혁명 때 프랑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교육받는 것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던 것을 떠올리고는, 한국에 만약 그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국 학생들은 모두 떼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